

사회소외계층 디아코니아 세미나

- 빈곤과 교회의 역할: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과 교회의 역할-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16:00-18:00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 조직위원회

주관교회 | 사랑의교회

일정표

시간	순서	내용
16:00~16:10	인사말	손인웅 목사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임대회장) 좌장 :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16:10~16:35	주제발표1	“빈곤과 교회의 역할” - 김기원 교수(서울장신대학교)
16:35~16:50	토론	“빈곤과 교회의 역할” - 김철진 교수(광신대학교)
16:50~17:15	주제발표2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과 교회의 역할” - 김형태 교수(서울기독대학교)
17:15~17:30	토론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고려되어야 할 것들 - 김형태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7:3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차

주제발표1	
“빈곤과 교회의 역할” - 김기원 교수(서울장신대학교)	4
토론	
“빈곤과 교회의 역할” - 김철진 교수(광신대학교)	39
주제발표2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과 교회의 역할” - 김형태 교수(서울기독대학교)	49
토론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고려되어야 할 것들 - 김형태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78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빈곤과 교회의 역할

김기원 교수(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들어가는 글¹⁾

성경은 빈곤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자를 우리는 빈곤에 처한 자라고 부른다. 사실 이땅의 빈곤이란 문제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어온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때로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지지만, 전통적으로 빈곤이란 욕구(needs)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빈곤이란 개념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의 빈곤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적 빈곤이 있으며, UN 등에서 논하고 있는 인간적 빈곤도 있다. 이러한 세속적 차원에서 빈곤의 문제 이외에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빈곤의 내용에는 영적인 빈곤(spiritual poverty)이 있다.

여러 빈곤의 유형 가운데 성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빈곤은 경제적 빈곤이다. 성서에서의 가난한 자는 주로 경제적 빈곤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적 빈곤은 그 기준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에 따라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관심을 갖는 빈곤은 객관적 빈곤이다. 객관적 빈곤은 다시 그 객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나 아니면 상대적이나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최저생계비 개념에 기초한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최저보장수준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1) 이 글은 '디아코니아 엑스포'의 세미나 발제를 위해 필자가 기준에 발표한 빈곤 및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논문들과 필자가 저술한 관련 저서들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논할 때는 주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활용이 되고,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와 같은 이슈를 논할 때는 주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활용된다. 여론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빈곤의 개념은 주관적 빈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관해 말씀하실 때 빈곤의 모습은 주로 객관적 빈곤 가운데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밀접하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할 때 빈곤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빈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빈곤의 원인을 이해해야 교회가 이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문제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체계적 분석을 위해 도움이 된다. 사회문제론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게 논해줄 수 있지만,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성서에서의 빈곤은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과 유사하지만, 갈등주의적 관점과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도 논해질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은 사회구조적이나 개인적이나의 관점에서도 논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예를 들면 사다리의 부재나 흡수저-금수저 논쟁과 같이, 기인하고 있다. 반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 음주, 방탕, 질병, 연락 등 개인적 사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즉 사례빈곤(case poverty)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주로 게으름이나 음주 연락 등과 같은 개인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빈곤문제와 관련된 기독교계의 견해는 대체로 일원론적인 견해와 이원론적인 견해로 나뉜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배경에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여 전도는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난한 자의 구제와 같은 사회봉사는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영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전도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일원론적 사고는 전도와 가난한 자의 구제와 같은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양자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영적 활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적 활동인 것이다.

II. 빈곤의 의의 및 유형

세속적 빈곤은 정부나 언론, 시민사회 등 비종교적인 영역인 세속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개념이다. 세속적 빈곤에는 전통적으로 노령·실업·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 그리고 인간적 빈곤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논해지지 않았던 근로빈곤이나 정신적 빈곤과 같은 신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 전통적 빈곤

전통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 그리고 인간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빈곤의 유형은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적 빈곤은 다시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며, 객관적 빈곤은 다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²⁾

2) 김기원, 『공공부조론』, (서울:학지사, 2000), 55-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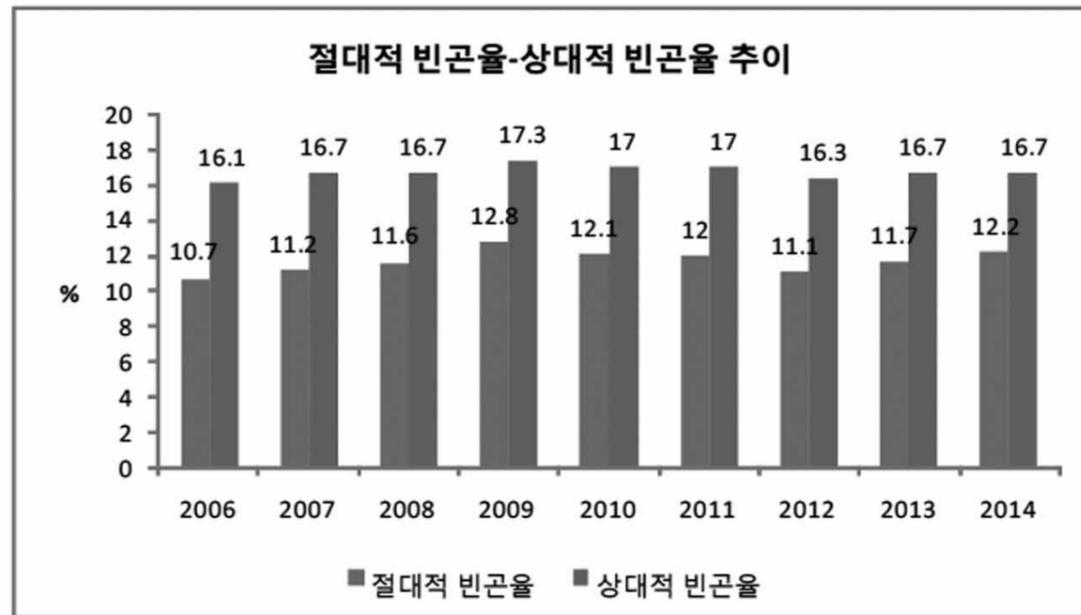
가)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은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의 영역이다. 경제적 빈곤은 그 기준이 객관적이냐 아니면 주관적이냐 여하에 따라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나뉜다.

a)객관적 빈곤

객관적 빈곤은 다시 그 기준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여하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성서에서 가난한 자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유형은 주로 절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2015 빈곤통계연보, 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기준 12.2%로 2012년11.1%, 2013년 11.7%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4년 16.7%로, 2012년 16.3%, 2013년16.3%와 비교할 때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³⁾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빈곤에 관해 통상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이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 생활하는 데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항목인 식·의·주·의료 및 기타 항목이 결핍되어 개인 및 가족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에 관해 논한 대표적 학자 가운데 하나인 Rowntree는 절대적 빈곤을 다시 일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빈곤이란 가구소득이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필수물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필수물’이란 식품 주택임대료 가재도구(조명 연

3) 정은희·이주미, 『2015 빈곤통계연보』,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9-15쪽.

료 옷 등)의 세 항목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그밖에 인간의 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필요한품목이나 헬스 클럽이나 보험은 이들 최저필수물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이차적 빈곤이란 가족의 전체소득이 단순히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는충분하지만 실용적이든 낭비적이든 다른 부문에는 조금이라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차적 빈곤인지를 알기 위해선 직접적 조사를 통해 소득이 음주 도박 기타 낭비적 지출에 소비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또한 주부가 검소한 생활을 하는지 낭비적 생활을 하는지 여부도 알아야 한다.

Orshansky는 빈곤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미농림부의 절약식단(USDA economy diet)을 바탕으로 최소식품비를 산출한 후 여기에 당시 앵겔계수인 1/3의 역수인 세배를 곱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빈곤판단기준인 공식적 빈곤(official poverty)을 정의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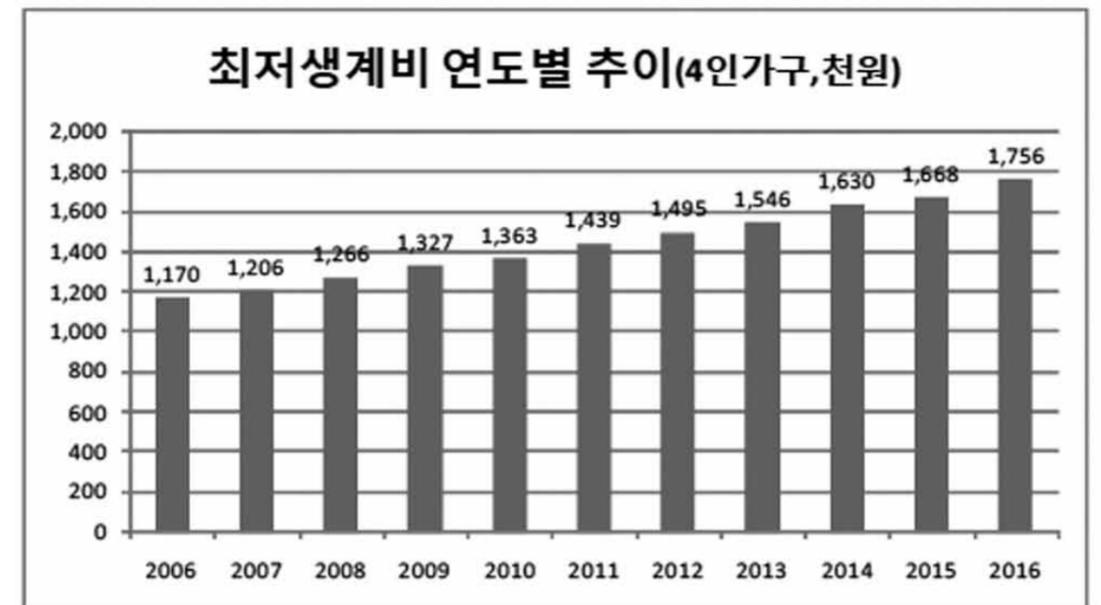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식적 빈곤선(official poverty line)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을 파악해 왔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6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⁵⁾

<가구별 월 최저생계비(2016)>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변동 추세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보건복지부, 2016.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여년간의 최저생계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점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4) 김기원, 『공공부조론』, (서울:학지사, 2000), 102-106쪽.

5)보건복지가족부, 2016년 최저생계비 공표, www.mohw.g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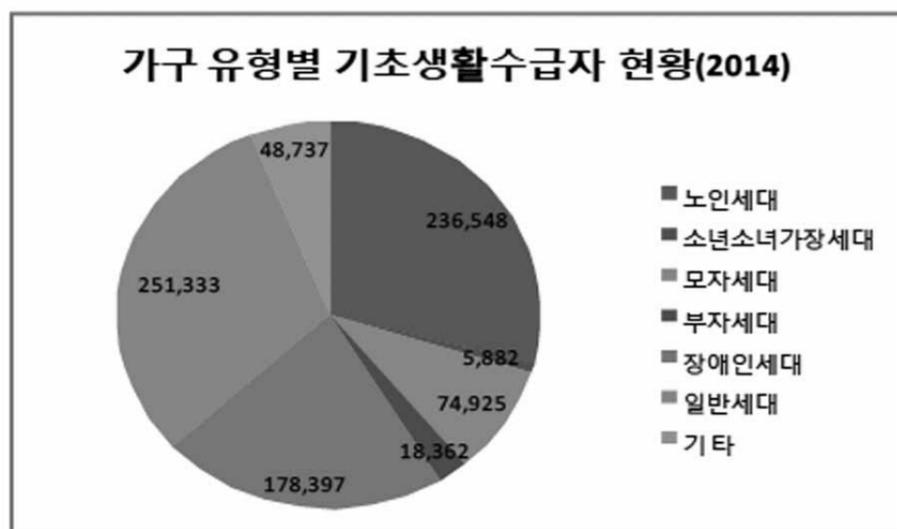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제로 개편된 2015년 이후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상징적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획기적인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인한 절대빈곤층들의 최저생활보장의 획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⁶⁾

절대적 빈곤 개념하에서는 사회 전체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의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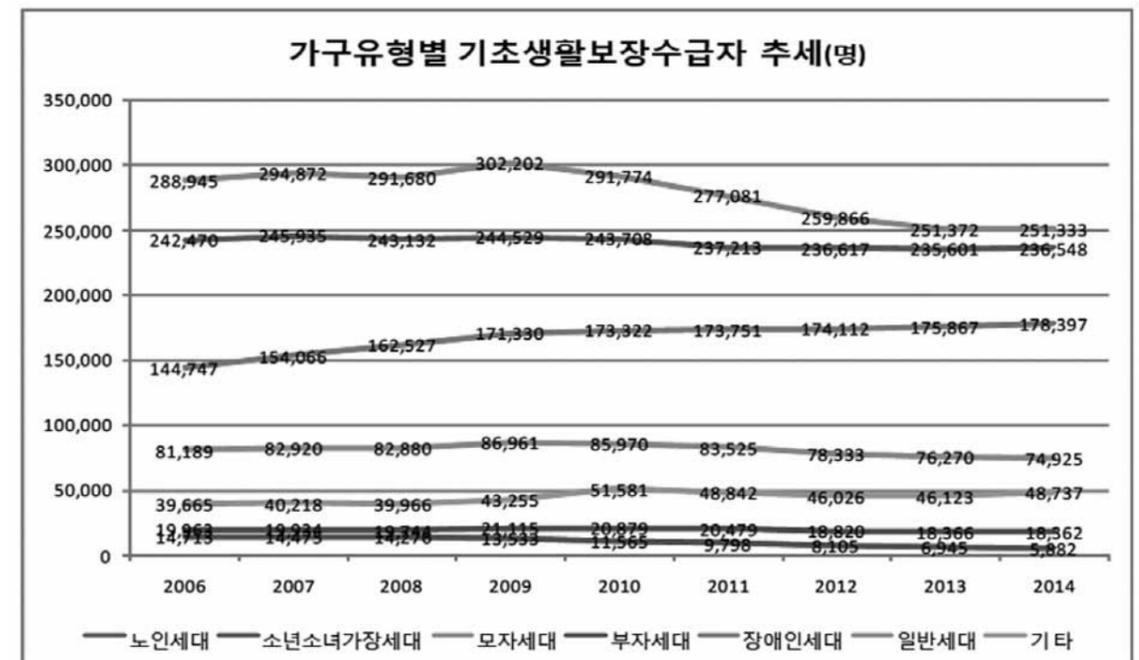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률 추이를 살펴보면, 수급자의 수가 완만함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빈곤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최근 우리 정부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면서 절대적인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저보장수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운데 일반세대가 약 31%로 가장 많았고, 노인세대가 약 29%, 장애인세대가 약 22%, 모자세대가 약 9%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세대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등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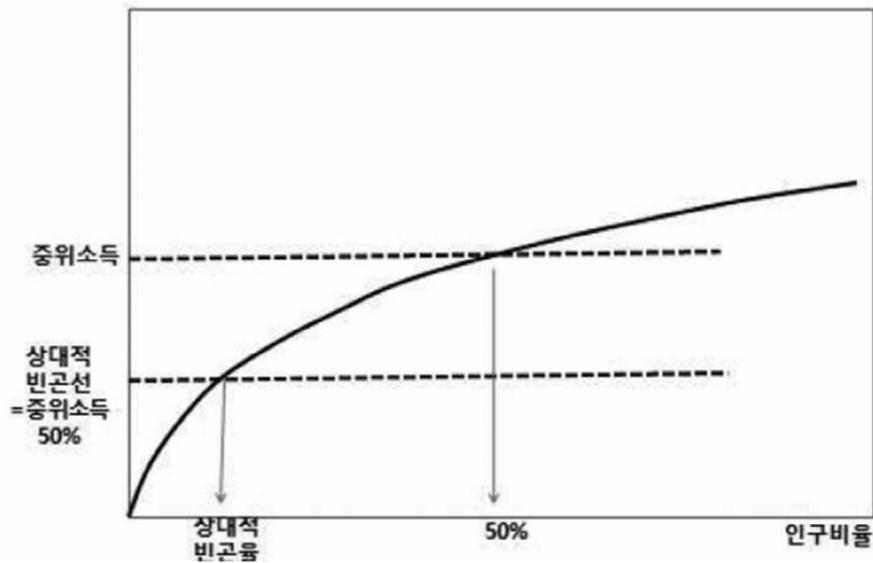
가구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 추세를 살펴보면, 일반세대 수급자의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고, 노인세대 수급자의 수는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세대 수급자의 수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비일반세대 수급자의 수는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②상대적 빈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수급자와 급여산정의 기초를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구성원 가운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종종 소득불평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⁷⁾ 상대적 빈곤을 정하는 기준값으로 평균소득, 중위소득, 소득분포, 지니계수 등이 사용이 되나 최근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위소득 개념에 기초할 때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통상적으로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통계에서 중앙치(median)에 해당하는 값으로 사회구성원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7) 이두호 외, 『빈곤론』, (서울:나남, 1991), :50-58쪽.

상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선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Townsend는 평균소득의 80%를 빈곤선으로 책정하고, Rainwater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하고 그 수준에 미달되는 소득자들을 빈민으로 규정하였다. Townsend는 가구소득이 평균소득의 50%이하일 때는 극빈층, 80% 이하일 때는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 사회의 가계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순으로 분포시키고, 그 가운데 일정한 최저 비율(예: 하위 10% 혹은 하위 20%) 이하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란 상대적 부족(relative insufficiency)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Townsend는 상대적 부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박탈점수(deprivation score)'를 개발한 후, 박탈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소득수준(breakdown point)을 빈곤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OECD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빈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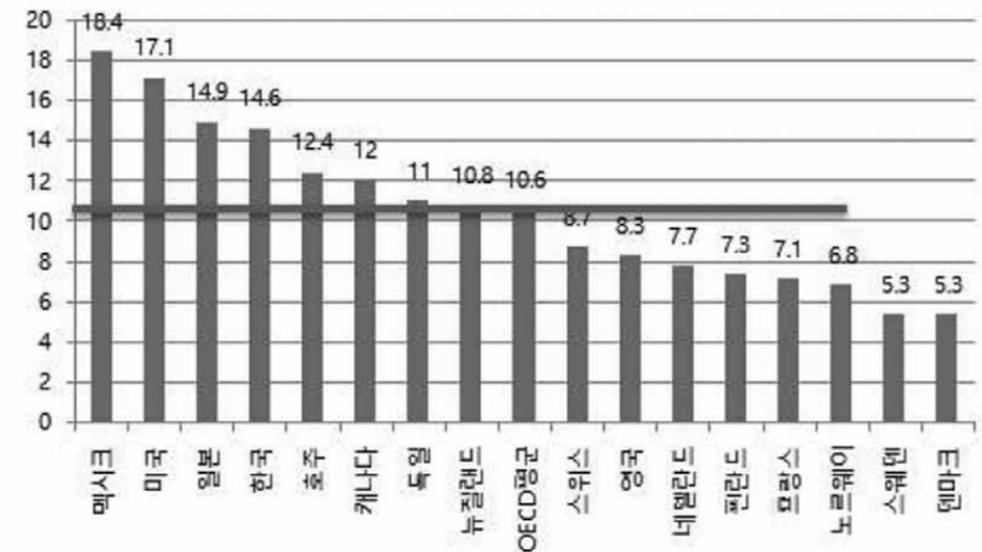
맞춤형 기초생활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과거〉		〈현행 맞춤형 기초생활급여체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의 80%수준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중위소득 3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기준중위소득43%	지역별 기준임대로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최저 생계비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기준중위소득40%	과거와 동일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 학용품비 53천원	기준중위소득50%	과거와 동일

출처:보건복지부. 2015.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에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고, 수급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⁸⁾

OECD국가 상대적 빈곤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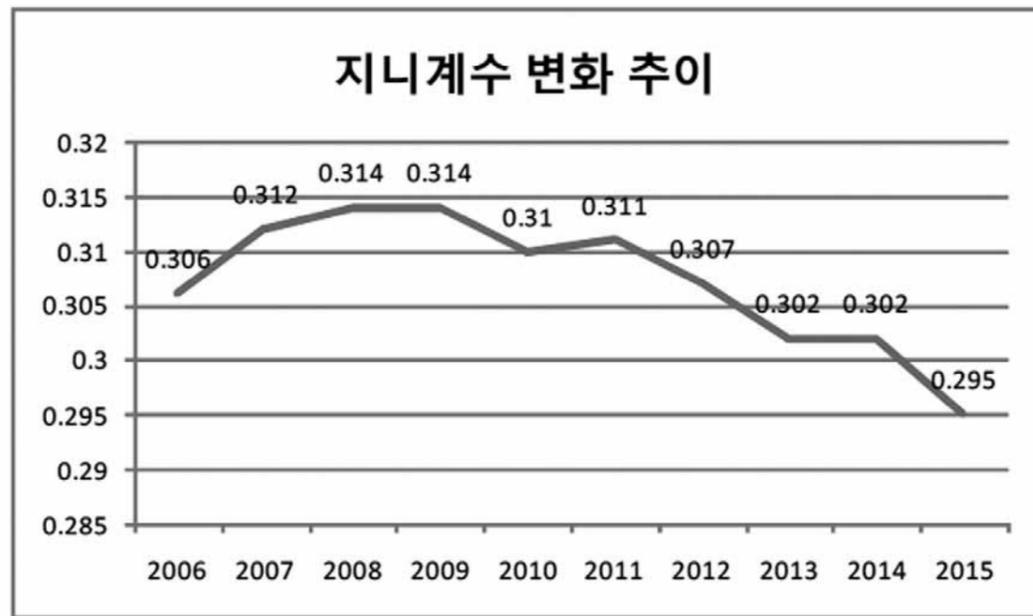
출처:World Bank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다른 OECD 국가뿐 아니라 OECD국가 평균(10.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18.4%), 터키(17.5%), 미국(17.1%) 등이며, 일본,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발전된 스웨덴과 덴마크는 각각 5.3%로 가장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⁹⁾ 특히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노르웨이 1.5%, 호주 7.6%, 미국 1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종종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소득불평등계수이다. 로렌츠 곡선은 하위 x%의 가구가 y%의 소득이 분배될 때의 확률 분포를 누적 분포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이용된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의미하는 반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울:보건복지부, 2015), 23-53쪽.

9) OECD 국가 상대적 빈곤율, worldrank.tistory.com/



출처: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지니계수(1인 및 농가포함)는 2009년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점점 감소해오고 있다.¹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차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란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정의되어지는 빈곤을 말한다. 주관적 빈곤의 경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주관적 빈곤을 정의하는 예로는 사회조사에 의한 방법과 라이덴(Leyden) 방식을 들 수 있다. 사회조사에 의한 방법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얼마인가에 관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응답한 금액들을 평균하여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를 빈민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이덴 방식은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 개발된 방식으로 먼저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묻고 이 최소 소득과 그들의 실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소득과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소득이 일치하는 점을 빈곤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나) 문화적 빈곤

문화적 빈곤이란 문화적 측면에서 정의된 빈곤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문화빈곤층 내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문화기본법」이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10)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률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정책대안들을 강고하여 실시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갖는다.¹¹⁾ 이러한 입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 문화적빈곤이란 이러한 문화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래 문화적 측면에서 빈곤을 처음 정의한 학자는 Oscar Lewis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나아가 그들 특유의 생활양식을 이루어 가며 이러한 생활양식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세대간에 전승(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되어 영속화되어진다.¹²⁾ 휘스넬(Whisnat)은 빈곤에 관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설정하였다; 빈곤은 동기부여에 대해 문화적 환경적 장애가 되고, 결국 나쁜 건강, 부적절한 교육, 그리고 소득 잠재력을 제한하는 낮은 유동성을 초래하며, 이는 빈곤에 이르는 제한된 소득기회의 원인이 된다.¹³⁾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민감한 경향이 있고, 현실에 사로잡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별로 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으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빈곤문화는 빈민들이 학교, 교회, 정당, 노조 등 사회의 주된 제도들에 참여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막아서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이 많으며 합법적 결혼 없이 동거하는 가정이 많다. 셋째, 빈곤문화는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되며 출세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넷째, 빈곤은 악순환 되어진다. 빈곤가정의 부적절한 부모(1세대)는 부적절한 아동을 양육하고,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부적절한 아동으로 성장하며, 이들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실패하여 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며, 이들은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며, 빈곤으로 인해 출산된 아동에게 부적절한 부모(2세대)가 되는 것이다. 즉 1세대의 부적절한 부모에게서 출산된 아동은 부적절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실패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며 경제적 빈곤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전에 자신들의 부모처럼 자신도 부적절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양육형태를 거쳐 빈곤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poverty)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즉 빈곤이 세대간에 전승(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되어 영속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일종의 사회적 배제현상(social exclusion)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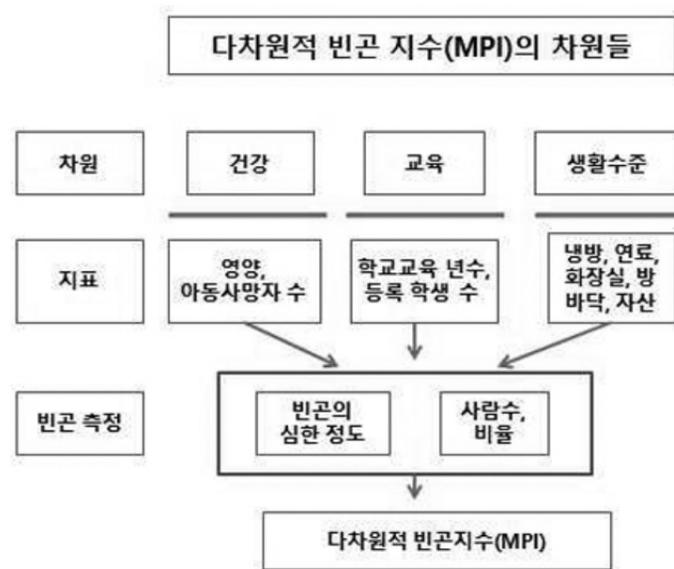
11) 법제처, 문화기본법, www.moleg.go.kr

12) Charles A. Valentine, Culture and Poverty, (Chicago, I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69.

13) Michael Harrington, The New American Poverty, (New York, NY: New York / Penguin Books, 1985), 204-206.

다) 인간적 빈곤

인간적 빈곤(human poverty)이란 소득이외의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결핍된 상태로 최근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빈곤 개념이다. 인간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수들은 다수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는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0년 개발한 다차원적 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이다. MPI는 추상적인 인간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측정한다.¹⁴⁾MPI는 같은 시기에 겪고 있는 중복된 결핍(overlapping deprivations)을 고려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금전적 측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에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출처:UNDP

MPI는 결핍을 건강, 교육, 생활수준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결핍을 파악한다. 건강의 차원은 영양과 아동사망자 수라는 지표로, 교육의 차원은 학교교육 연수와 등록 학생 수로, 생활수준 차원은 냉방, 연료, 화장실, 방바닥, 자산이라는 지표로 측정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빈곤의 심한 정도와 빈곤에 처한 사람의 수, 그리고 빈곤율을 측정한다. 이와같은 과정을 걸쳐 MPI는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다.

MPI는 빈곤의 심한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빈곤가구들이 보통 겪고 있는 결핍의 갯수를 보여준다. MPI는 가장 극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할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책개입의 영향을 감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적 빈곤이 고려하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로는 짧은 수명, 아동의 영양실조, 높은 문맹률, 수질오염, 장기실업,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이 있다.

1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

라) 기타 전통적 빈곤에 관한 논의

Murray는 사회 내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서 경제성장에 의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유형의 빈곤을 구조적 빈곤(structural poverty)이라고 하였다. 그는 공식적 빈곤 이외에 수급자의 소득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현금 가치를 합산한 소비지출을 위한 순소득(net income)이 공식적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순빈곤(net poverty)과 정부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이전소득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빈곤인 잠재적 빈곤(latent poverty)를 소개하였다.¹⁵⁾

DiNitto & Dye는 빈곤을 ‘박탈로서의 빈곤’,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문화로서의 빈곤’, ‘착취형태로서의 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박탈(deprivation)로서의 빈곤’이란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주거 의복 의료 기타 다른 품목들이 불충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Ginneken은 ‘일시적 빈곤(casual poverty)’과 ‘지속적 빈곤(persistent poverty)’으로 구분하고, 빈곤이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나타날 때 이를 ‘도서빈곤(insular poverty)’으로 정의하였다. Galbraith는 ‘사례빈곤(case poverty)’과 ‘지역빈곤(area poverty)’으로 나누면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특징의 결과로 나타날 때 이를 ‘사례빈곤’이라 부르고, 반면 빈곤이 기술적 변화나 산업화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역빈곤’이라 부른다.

나) 신빈곤

신빈곤(new poverty)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산업화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곤의 유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신빈곤은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빈곤계층들을 의미하는 데, 당시에 이들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거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신빈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아젠다에 오르게 된 것은 1997년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이후 부터이다.¹⁶⁾ 전통적으로 정부와 사회는 빈곤층은 노령,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근로빈민(the non-working poor)으로 간주하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빈곤하지 않거나 빈곤에서 벗어나게된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빈곤문제를 대처하여 왔으나, 이제는 근로를 하여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점차 증가하여 기존의 빈곤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뀌어가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빈곤 이외에도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곤의 유형들이 있다. 그 예로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mental poverty)을 들 수 있으며, 관계빈곤(relation poverty)이란 용어가 조기퇴직자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밖에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과도한 채무를 동원하여 집을 마련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우스 푸어(the house poor),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야 해 저축 여력이 없는 렌트푸어(the rent poor), 과도한 자녀교육비를 감당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빈곤층(the education poor),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정보빈곤층(the informa-

15) Charles Murray, Losing Ground, (New York, NY:New York / Basic Books, Inc., 1984),:63-66.

16)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8-10쪽.

tion poor), 적절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빈곤층(the culture poor), 부모의 빈곤을 대물림 받게되는 대물림 빈곤(the transmission poor) 등을 들 수 있다.

a)근로빈곤

근로 빈곤(the working poverty)는 정규적이든 비정규적이든 간에 근로에 종사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을 말한다. 근로빈곤층은 피고용자로서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자로서 근로를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 빈곤선(official 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계층이다. 이들은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전통적인 빈곤구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종종 신빈곤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신빈곤의 문제가 정부의 아젠다에 오르게 된 것은 1997년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이후 부터이다. 당시 정부는 IMF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대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발생,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만으로 이전과 같이 적절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기술변화가 가져온 풍요의 시대에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은 하지만 빈곤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고, 빈곤계층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계층상향이동(upward mobility)의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신빈곤의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근로 빈곤층(the working poor)의 문제가 신빈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종 논의가 되고 있다.

근로빈곤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계도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빈곤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의를 한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여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¹⁷⁾

근로 능력 상태	노동력 상태	빈곤 상태	근로 빈곤층 유무	빈곤하지 않은 상태
근로 능력 있음	경제활동참가	취업자	근로 빈곤층	취업비빈곤층
		실업자		실업비빈곤층
근로 능력 없음	경제활동 참가 하지 않음	근로능력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계층	비(非) 근로빈곤층	근로능력 -비경제활동 -비빈곤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학생 -군입대 대기자		근로무능력- -비경제활동 -비빈곤층

근로빈곤층의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 참가 유무 그리고 빈곤 유무를기준으로 분류하면, 근로빈곤층은 취업 빈곤층, 실업빈곤층 그리고 근로능력-비경제활동 빈곤층으로 구분된다. 이들 근로빈곤층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는 유형은 현재 일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업빈곤층이다.

17) 김혜련,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9서울:통계청 통계개발원, 2010). 267-299쪽.

취업빈곤층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절대적빈곤율1	3.5	3.6	4.6	4.4	4.5	4.8	5.3	4.7	4.5	4.1	4.4	4.3
절대적빈곤율2				4.6	4.9	5.0	5.0	5.8	5.4	5.3	4.9	5.3
절대적빈곤율3	8.4	8.8	8.1	8.6	9.9	9.2	10.5	9.2	9.3	9.1	8.9	8.2
절대적빈곤율4				9.3	10.9	10.4	11.6	10.8	10.8	10.9	10.8	10.2

주) '1'은 1인가구 미포함한 경우 / '2'는 1인가구 포함한 경우

*출처: 2015 빈곤통계연보, 보건사회연구원



취업빈곤층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12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빈곤율은 1인가구를 포함했을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절대적 취업빈곤층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2009년까지는 점증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빈곤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0년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¹⁸⁾ 이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상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b)정신적 빈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전적으로 정신이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자세나 태도,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등을 의미한다.

정신적 빈곤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정신적 빈곤이란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규범, 도덕심과 윤리의 등이 결핍되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황폐화된 정신상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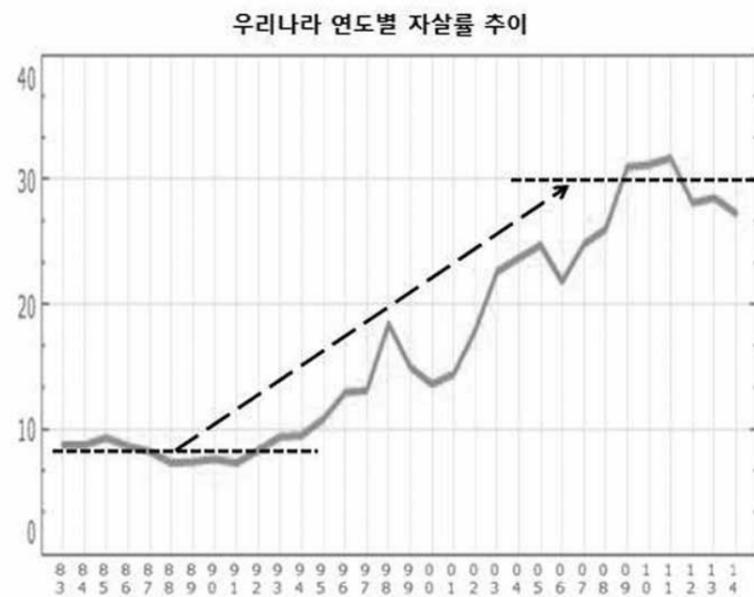
정신적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회구조적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혼자서 겪는 우울감이

18) 정은희·이주미(2015), 『2015 빈곤통계연보』,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87-91쪽.

나 절망감, 인간적 소외,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잘못된 인격, 근면보다는 도박과 같은 일순간의 요행에 인생을 거는 일탈적 사고 등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정신적 빈곤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정신적 빈곤이다. 사회적 차원의 정신적 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 사회적 배제, 인간성이 상실된 몰인격적 사회, 소수의 승자가 모두를 취해가는 승자전취주의사회,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회적 타살, 남을 쉽게 정죄하는 파괴적 사회문화 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무력감이나 절망감에 빠져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정신적 빈곤은 극단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도박을 합법화한 강원랜드가 자리잡고 있는 정선군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72.9명으로, 전국 평균 자살률 31.2명보다 두배 이상 높다.

정신적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논해질 수 있지만, 어느 한 국가의 정신적 빈곤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로 자살률이 종종 사용이 된다. 자살률이 정신적 빈곤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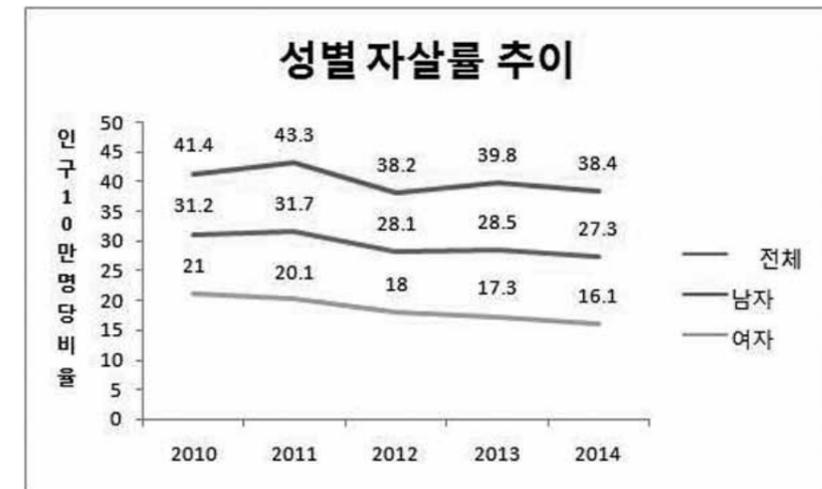
정신적 빈곤 추세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출처: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각 년도

연도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 10만분률은 1994년 이전까지는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 수준이었으나, 그 후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30명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이후 약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1983년에 비해 여전히 3배에 달하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빈곤상태가 악화된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 통계청, "2014 사망 원인 통계", (서울:통계청, 2015),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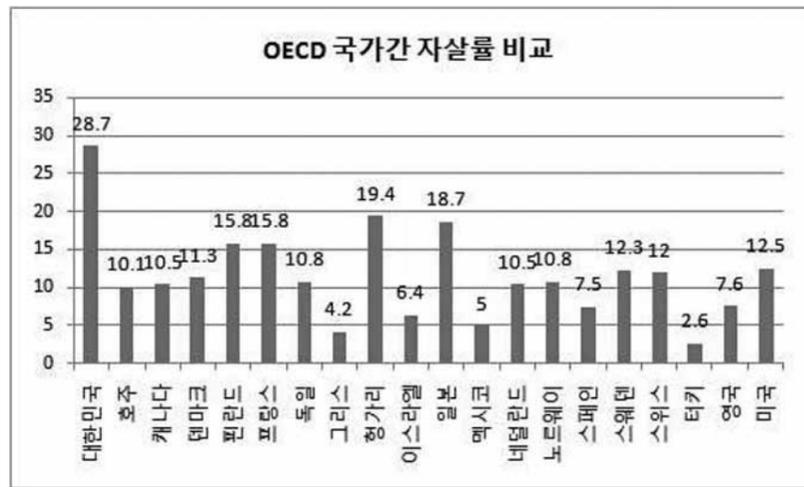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각 년도

성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자들의 정신적 빈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각 년도

연령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자살률보다 세배 이상, 50대 자살률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적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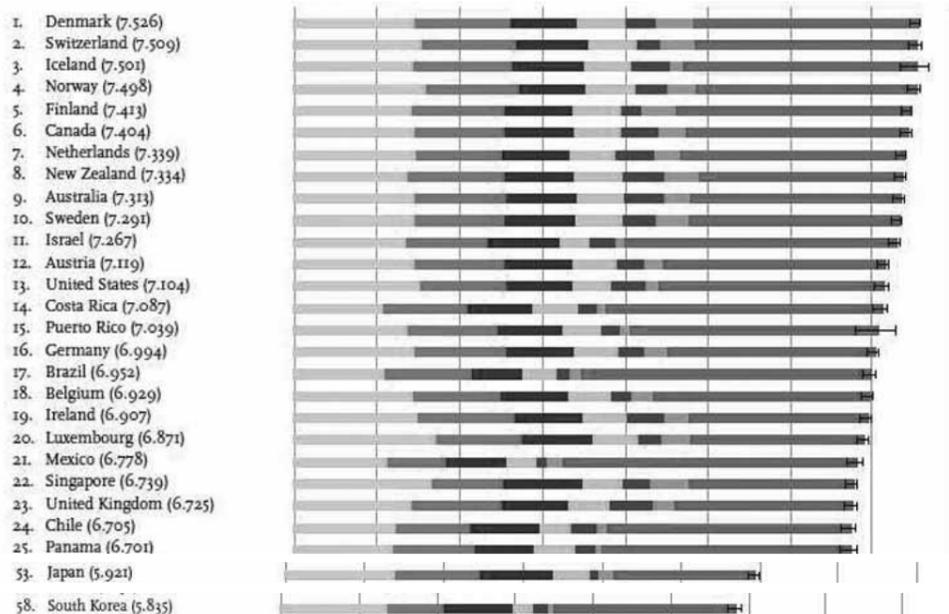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 각 년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을비교하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터키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량 높으며,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네델란드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인 헝가리나 일본과 비교할 때도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빈곤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정신적 빈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 가운데 다른 하나는 행복지수(happiness index)이다. 최근 국가별 행복지수가 여러 연구기관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성이 있는 연구결과는 UN 산하기관의 연구결과이다.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증진시키고자 창설한 기구인 “UN 지속가능한 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정기적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 국가별 행복지수(2016) 현황 >

출처: UN SDSN



SDSN이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민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SDSN가 국가별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건강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삶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사회적 자유(social freedom), 관대함(generosity), 부패 부재(absence of corruption), 예측오류를 대비한 디스토피아와 잔량(Dystopia + residual)으로 구성되었다.²¹⁾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인 0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10까지의 10분위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의 경우, \$27,513으로 세계 28위에 속하는 반면 행복지수는 5.835로 세계 58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행복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신적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국민소득과 자살률을 통해 분석한 정신적 빈곤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7.526, 1위), 노르웨이(7.498, 4위), 핀란드(7.411, 5위), 네델란드(7.339, 7위) 등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모두 10위 이내에 속하고있어 경제적 풍요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기타 : 도덕적 빈곤과 관계빈곤

도덕적 빈곤(moral poverty)은 사람들이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빈곤은 알콜중독,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 도박 중독, 성적 타락 등에 사로잡혀 더 이상 인생의 참된 의미와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만든다. 도덕적 빈곤은 공직자 기강 상실, 관료의 병리현상(bureaupathology), 복지수혜자의 인권유린, 부정부패, 직권 남용 등과 같은 반(反)도덕적 행위들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료효친과 같은 전통적 도덕성의 붕괴나 자녀 학대 등에서 나타나는 반윤리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계빈곤이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은 관계가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특히 조기 은퇴자나 명예퇴직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관계 만들기’ 대안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 복지주택, 약속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동네사랑방,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²²⁾

2. 영적 빈곤

성경에 나오는 빈곤에는 세속적인 빈곤뿐 아니라 영적인 빈곤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빈

20)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6>

21) hypothetical country called Dystopia, so named because it has values equal to the world's lowest national averages for 2013-2015 for each of the six key variables.

2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곤을 분석할 때에는 세속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전적 관점에서 빈곤을 분석하여야 한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영적 빈곤(spiritual poverty)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하나님의 영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영적 자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믿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과 그 의미의 깨달음, 복음의 생명력, 참된 경건, 영의 양식, 영적 분별력,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의 순종, 이웃과의 관계, 공동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영적 빈곤은 세속적 빈곤을 초래하는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속적 빈곤이 영적 빈곤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종속변수가 되기도 한다. Chambers의 빈곤의 체계를 원용하면, 영적 빈곤은 물질적 빈곤, 육체적 허약, 취약성, 무력함, 고립 등과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갖고 있다.²³⁾ 빈곤의 체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빈곤, 육체적 허약, 고립, 무력함, 취약성은 모두 영적 빈곤과 관련이 있다. 가난한 자들은 저주, 귀신, 잡신, 조상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삶과 사회체계에 영향을 줄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무력하게 살아간다. 영적인 빈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영양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의 단절은 정부의 서비스, 시장,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저주를 없애고 영들의 축복을 보장받는 것은 물질적 빈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영적 빈곤은 재난과 사회적 관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빈곤의 대물림현상으로 논해지듯이, 영적빈곤의 악순환도 세대간 대물림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성경은 영적 빈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믿음 없음:** 믿음의 없음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음(마13:57-58, 막6:5-6), 믿음이 미지근하면 가난하고 곤고하게 됨(계3:17),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근을 겪게 됨(암8:11),
- 2) **지식 없음:**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 부하게 되지 못함(잠10:21-22))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굶주릴 것(사5:13),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하고 어리석게 됨(렘5:4-6) 지식이 없어 패망하게 됨(호4:6-7),
- 3) **불순종:**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여 마음이 부패하여짐(딤후3:3-5)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2:12),
- 4) **겸손하지 않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나옴(잠16:19),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옴(잠17:1),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약1:9-10),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심(약2:5-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음(마5:3) 주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심(약4:10. 벰전5:6-7. 잠3:34),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어려울 때에 구원 하심(시116:5-6),
- 5) **간구하지 않음:** 곤고한 자가 부르짖지 않으면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함.(시34:6-10)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 임하시면 가난과 궁핍에서 건지어 내심(시35:10, 시70:5, 시86:1, 시109:22),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심(시34: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심(102:17),

23) Meyers Bryant L.,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 and Practice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장훈태역,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 장훈태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6) **행함이 없는 믿음:** 선을 행하지 않음(롬7:18),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24-2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옴(시37:16),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옴(잠16:8),

7) **통회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시51:17),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심(사66:2),

8) **하나님의 영이 임재:**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사61.1),

9) **번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옴(잠15:16-17:),

10) **나태:** 게으른 사람은 주릴 것임(잠19:15)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옴(잠19: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굶게 행하는 자보다 나옴(잠28:6),

III. 빈곤의 원인에 관한 논의

교회가 빈곤문제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빈곤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한다.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나를 탐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틀이 존재하지만, 이를 크게 구분하면 사회문제론적 분석과 개별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사회문제론적 분석은 크게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첫째,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 전체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들은 나름대로 응당 수행해야 할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응당 수행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사회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며 발전하게 된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때에는 유익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부정적인 기여를 한 일탈자에게는 징벌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의 분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빈곤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일탈행위의 결과이자 일종의 사회적 징벌로 간주한다.

성경에서 언급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면, 많은 경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되는 빈곤의 원인과 유사하다. 성경은 빈곤을 주로 게으름, 음주, 방탕 등과 같은 일탈행위의 결과로 보고 있다.(잠6:6, 잠6:10-11, 잠 10:4, 잠 12:24, 잠20:4, 잠24:33-34, 테후3:10) 이러한 빈곤의 유형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Galbraith가 주장하는 사례빈곤(case poverty)의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면, 기능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빈곤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다른 공적제도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제도적 일탈에 있다고 본다. 달리 표현하면, 빈곤은 일종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길버트와 스펙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기능은 상호부조(mutual support)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빈곤의 원인은 사회복지제도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서에서 빈곤구제를 제도화한 여러 제도들 가운데 하나는 십일조제도이다. 고대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십일조는 조공이나 세금과 같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 신에게 바쳐지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있었다. 종교적인 목적의 십일조는 성전 일에 봉사하는 일꾼들의 생활을 돕기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빈곤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십일조에 관한 말씀은 모세5경의 여러 곳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신명기와 레위기 등에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뿐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이들 성경말씀에서 십일조의 중요한 사용 용도 가운데 하나는 소유물이 적은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신 14:28-29, 26:12, 레25:4-7, 민18:28-29) 이때 구제의 수준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즉 그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배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수준의 적정성(adequacy) 또한 강조되고 있다. 십일조는 결과적으로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가진 자의 소산의 일부가 십일조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가운데 일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전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배를 통한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빈곤이 상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십일조제도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용되지 않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칼빈도 십일조가 빈곤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칼빈은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만 십일조를 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레위인과 함께 과부, 고아, 외국인들을 언급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고 종교도 다른 외국인들을 동정하기를 원했다.²⁴⁾

칼빈은 개혁신교회 안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책을 제정하고, 각각에 기능을 부여하였다. 각자는 자신의 직책에 따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협력적 통치를 수행하게 된다. 칼빈은 집사의 기능은 구제봉사라고 하였다. 가난한 자들을위한 기부금이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서 집사가 탄생되게 되는 배경에는 빈곤구제를 전담하는 요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활과 통합된 결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 지방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을 했다. 불평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곱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이 다툼은 해결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자선의 양식을 분배하는 열두 제자들을 도움으로써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빈곤구제를 전담할 요원으로서 집사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행6:1-6)

칼빈은 교회에서 집사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물질을 각출하고 분배하며, 병자들을 간호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등 복지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중세에는 집사가 부제였으나 칼빈은 집사의 역할을 사제 보좌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사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칼빈은 이와 같이 집사가 구제봉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성서적 의미의 집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사도 바울의 집사 직에 대한 가르침을 재해석 하면서 집사의 종류를 '교회를 위해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procurators)

24) 황정욱, "종교개혁기의 십일조와 가난의 문제", 『한신논집』16(1), (서울:한신대학교출판부, 1999),220-224쪽

과 '직접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hospitalers)'로 구분하였다.

둘째, 갈등론에 따르면, 빈곤은 착취(exploitation)의 결과로 본다. 특정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몫(due)보다 더 많은 몫을 받는 반면, 다른 집단은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몫보다 더 적은 몫을 받기 때문에 더 적은 몫을 받은 개인이나 집단은 빈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권력집단들은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의 몫을 착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집단은 빈곤하게 된다.

셋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해사회나 다른 집단이 의미를 부여하고 일정한 정의를 내리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가 반복되고 확산되어 가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이를 수용하여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의 정의에 부응하여 사회가 정의한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빈곤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생된다. 빈곤층은 타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에 낙인을 찍은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에 빠지게 되고 오랫동안 빈곤을 지속하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의에 부응하여 행동하게 되고, 결국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빈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다.(잠14:21-22, 31, 17:5, 19:17)

빈곤의 원인에 관한 개별적 접근은 인간자본이론, 신고전주의이론, 케인즈이론, 우연성이론, 차별이론 등이 있다. 첫째, 인간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인간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며, 개인의 생산성 여하에 따라 임금과 소득이 결정되므로 빈곤이란 인간자본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본다. 둘째, 개인선택이론에서는 빈곤이 여가와 노동간에, 또는 안정추구나 아니면 위험부담 감수하고 도전을 하느냐라는 양단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만일 노동대신 여가를 선택하거나 위험부담을 느껴서 새로운 일을 회피하고 안정된 일을 추구하는 경우 빈곤에 빠지게 된다. 셋째, 상속이론에 따르면,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유전적 인자, 부모의 양육, 사회적 교류 등과 같은 상속재산의 결핍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 넷째, 우연성이론에 따르면 갑작스런 기업도산, 교통사고, 화재, 수해 등과 같은 우연히 닥친 불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 빈곤이 발생한다. 그밖에 Storm은 신고전주의 이론(neo-classical theory)에 따르면 임금의 결정요인인 한계생산성의 부족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 차별이론(discri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등과 같은 차별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 케인즈 이론(Keynesian theory)에 따르면 만성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²⁵⁾

IV. 성서에서의 빈곤

성서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이고, 빈곤이 왜 그들에게 도래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25) Diana M.DiNitto, & Thomas R. Dye. Social Welfare:Politics and Public Policy, (Newjeret, NJ / Prentice Hall Inc. 1988), , 253-256.

구약성서에서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식물이 되게 하셨다. 태초의 세상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너무나 풍요로운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퇴출되었고, 그 이후 인간은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고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빈곤이란 결국 죄의 결과인 것이다.²⁶⁾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빈민에 대한 이웃사랑을 규정하고 있다. 빈민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와 함께, 안식년과 십일조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다 심화하고 있다. 안식일은 종된 생활을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십일조의 납부의무도 강조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십일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십일조의 중요한 사용용도 가운데 하나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통해 가진 자들이 자신해서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종에서 해방시켜줌으로써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빈민을 고리로 착취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말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출22:25-27, 레19:9-10, 레23:5-37, 레5:4-7, 신14:28-29, 신15:9-10, 겔18:7-8, 겔18:12-13)

특히 신명기 등에서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뿐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십일조는 가난한 레위인과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이 매 7년마다 자신해서 가난한 자들의 빛을 탕감해주도록 함으로써 부자들의 자기 희생을 통해 채무로 인한 노예계층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잠언은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구제받기에 마땅한 빈민을 선별하여 보살피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자 잠으로 경건한 삶이며, 구제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워 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잠3:27, 잠11:24-25, 잠14:21-22, 잠14:31, 잠17:5, 잠28:6)

신약성서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구제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뿐 아니라 이를 영생의 조건으로 관련시키고 있고, 집사가 전문구제요원으로서 기능적으로 탄생하였으며, 참된 빈민에 대한 선별적인 빈곤구제를 가르치고 있다.

신약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형제 중에 주린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of persons)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들 하나에게 베풀 자가 의인이고 이들에게 베풀것이 곧 자신에게 베풀 것이라 말씀하셨고, 반면에 악인은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 하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이 곧 자신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이라 천명하시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짐을 말씀하셨다.(마

26) Oxford Conference,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UK: Oxford/ Oxford Conference, 1990), 1-5.

25:31-46, 마19:16-26, 마22:37-40, 막10:17-27) 같은 맥락에서 영생과 관련하여 성경은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신다.(눅3:7-17) 또한 강도만난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 사랑의 실천을 거듭 강조하면서 곤궁에 처한 자에 자비를 베풀 자가 참다운 이웃임을 말씀하신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타적 사랑을 통해 사회연대를 피함으로써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믿는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재분배(redistribute according to his need)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백성의 칭송을 듣고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행2:44-47, 행4:32-35) 빈곤구제사업이 전도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한 사례이다. 또한 앞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들이 말씀에 더욱 정진하게 하기 위해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으로 집사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집사는 당시 그 사회의 기득권자인 히브리파가 아닌 사회적 약자인 헬라파에서 모두 선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기득권자와 사회적 약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는 사회연대를 이루게 된다.(행6:1-7)

신약성서에서는 선별주의(selectivism)에 입각한 실천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기 위하여 과부명부(matricula)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가난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산조사와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선행을 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상태조사(status test)를 실시한 후 적합한 과부를 선별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부명부는 일종의 빈민명부에 해당한다.(딤후5:1-10)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중요한 요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약1:26-27) 또한 성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약2:14-26, 4:17, 요일3:17-18)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토대로 '열매없는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고 설교하였다.

V. 전통적-통전적 선교관과 빈곤구제

일반적으로 선교와 사회봉사에 관한 관계는 크게 전도 = 선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전통적 선교관과 선교 = 전도 + 사회봉사라는 통전적 선교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선교관은 빈곤구제의 선교적 가치를 부인하거나 매우 경시하고 있고, 반면 통전적 선교관은 빈곤구제의 선교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전통적 선교관은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교관으로 선교는 전도만을 의미(선교 = 전도)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일원론적인 견해를 갖고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빈곤구제란 선교영역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된 의미 속에서 실행되어야 할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통적 선교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본분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빈곤구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구원이라는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다.

둘째, 빈곤구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복지사업 종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도들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

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셋째, 빈곤구제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선교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유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빈곤구제는 선교에 도움이 된다.

넷째, 전도와 빈곤구제와의 관계는 씨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 교회가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변화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다섯째, 세상이 종말에 임박한 말세에 우선 급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구원이다. 인간구원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이같은 절박한 말세에 빈곤구제를 실시할 시간이 없다.

여섯째, 육체, 사회, 이 세상을 영혼, 개인, 저 세상과 구분하고 영혼, 개인, 저 세상을 중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빈곤구제 노력들을 경시하고 있다.

일곱째, 예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었지만 모든 배고픈 사람을 먹인 것은 아니었다. 빈곤구제는 예수의 사역의 일부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통전적 선교관에 따르면 선교란 전도와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도와 사회봉사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역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양자간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로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통전적 선교관에 따르면, 빈곤구제는 선교사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이다.

통전적 선교관은 1974년 로잔느회의(Lausanne Congress) 이래 주창되기 시작하였다.²⁷⁾ “우리 모두는 수백만의 가난한 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으며, 그것을 야기케 한 불의들로 인해 경악을 느낀다.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은 구제와 복음 운동 양자에 훨씬 활기차게 기여하기 위해서, 소박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킬 우리의 의무를 수락한다.”(로잔느 협약 9절)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는 복음주의자들의 공식적인 사회선교관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²⁸⁾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에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가 전도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자동적인 결과는 아니다. 교회가 복음전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사회봉사는 전도의 교량 역할을 한다. 사회봉사가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셋째, 전도와 사회봉사는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실천을 병행하시었다. 양자는 상호 종속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동역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존 스타트(John Stott)는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에 관한 세 가지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⁹⁾ “첫째,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는 ‘별개이나 동등한(distinct yet equal)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그 중 어느 것도 상대방에 이르는 수단이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각각 그 자체가 목적이며, 둘 다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둘째,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봉사를 단지 복음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지 않고 봉사 자체에 성실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강도의 제물이 된 유대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

27) Lane, Tony, Christian Thought, 김응국 역, 기독교 사상사, (서울: 나침반사, 1998), 515-9.
28) 서경운, “사회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88-91쪽.
29) Stott, John,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된 기독교,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444-455.

인의 사역은 그의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셋째,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양극화(polarization)를 거부해야 하지만 전문화 (specialization)를 거부하지는 말아야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나타낸다. 바로 그 때문에 자선사업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의한 상황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의의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격받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서 산적을 없애 버리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존 스타트는 사회봉사의 순수성에 관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세상에 보내어 졌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서 섬기게되어 있는 것(we love, we go, we serve.)이다. 이 일을 하는데 숨은 동기란 없어야 한다.”

후켄다이크(Hoekendijk)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교회의 벽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샬롬은 인간구원 이상의 내용이며 샬롬의 선포와 나눔과 실천을 선교로 볼 때 교회개혁이나 교파선전 형태의 재래식 선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너(E. Bruner)는 ‘기독교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눈감고 지배계층과 자본가들과 연합해 있을 때, 결국 교회 밖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과 이해가 아닌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붉은 혁명으로 확산된다. 이 운동의 여파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심하게 비난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만일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한 죄책을 함께 떠맡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만일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루터는 신앙과 선행간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갈2:16)는 말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행이 없는 신앙은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 쓸모가 없는 잘못된 신앙이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이무 필요가 없듯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 비록 사랑한다는 그 선행이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지는 않지만 이는 신앙의 산 증거와 열매로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알 수 없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피차간에 주고받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은 사랑의 마음과 실천이며, 국적, 빈부,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 사회봉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칼빈은 사유재산제도는 신적제도이기는 하지만 기금을 형성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빈부격차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납인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한 일로 간주해 준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둘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며, 우리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야수들처럼 잔인한지를 보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이 배고파서 부르짖을 때가

30) Niesel, wilhelm, Theologie Calvins,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82-190.

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수입을 거두기 위해 수납인 혹은 대리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³¹⁾

VI.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빈곤에 관해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이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도 통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³²⁾ 첫째, 가치판단자(value-judge)로서의 역할이다. 성경은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책이다. 교회는 성경에 기초해 가난한 자에 대해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 반면(잠14:21),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는 것이요(눅18:22), 그 구제로 인해 구제를 행한 자는 더욱 풍족해질 것이다(잠언11:24). 따라서 궁핍한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요일3:18; 눅10:25).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약4:17). 교회는 이와 같이 빈곤문제와 관련해 선악을 구분해 주는 가치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성서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앞서서 선도해나아가는 가치선봉자(value vanguard)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에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영적 멘토(spiritual mentor)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빈민들 가운데 일부는 영적 빈곤에 처해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구성원, 공동체, 피조물과 단절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역기능적으로 변하여 고통을 받는다. 교회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이들을 건강하게 지지해주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교회는 이들 영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진 빈민들을 위하여 교회의 구역임원이나 재직들을 멘토(mentor)로 임명하고, 빈민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링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멘토인 교인은 멘티(mentee)인 빈민을 면담하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빈곤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거나,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거나,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을 때, 그들의 영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원조를 행한다. 이들 교인들은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회의 자원이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상의 곤란도 영적인 지원과 함께 제공한다면 영적인 치유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 멘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민인 멘티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슈제기자(issue-initiator)로서의 역할이다. 이슈란 어떤 문제가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 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슈제기자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31) 이양호, 『갈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270-271쪽.

32)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교육과학사, 2009), 161-184쪽.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주체를 말한다.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사회에 알리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없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나아가 교회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권위있는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진지한 관심을 도출해낼 수 있는 아젠다 형성자(agenda set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생계지원자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생계지원사업은 빈민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교회내 재원을 활용하여 생활상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생계지원사업은 초대교회 이래 전형적인 빈곤구제사업이다. 하나님은 매 삼년 끝에 바치는 십일조는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하는 떠돌이, 고아나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십일조는 대부분을 빈민들의 생계를 위해 풍요롭게 사용되어야 된다. 성경은 성도들의 십일조 납부 의무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빈민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교회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의 교구들은 교구주민들로부터 1/10세를 징수하여, 그 가운데 1/3내지 1/4을 빈민들을 위해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교회의 구역제도는 구역원의 영혼 성장뿐만 아니라 구역내 빈민들을 보살피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구역회가 유래된 것은 1742년경 영국의 John Wesley가 수십 개의 신도회(society)를 만드는 데서 유래한다. 당시에는 구역회가 매주 한번 한 시간 정도로 저녁시간에 모였으며, 회원은 가능한대로 매주 1페니씩 헌금하였고, 이 헌금을 가난한 자를 돕거나 순회전도자를 후원하는데 사용하였다.

다섯째,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의 기능이나 복지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조정하고, 유지하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기술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빈곤구제사업이 교회의 일차적인 주된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전문사회복지사들이 교회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의 모델 가운데 확장-중개자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교회는 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빈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회의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서비스 사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전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례관리를 통해 교회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자원 제공자에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사례관리자로서 잉여식품나눔은행을 운영하거나,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연계시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시켜 법률구조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지역 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한지 등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교회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혜자-친화적인(client-friendly) 빈곤퇴치프로그램이나 빈곤완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다.

일곱째, 사회교육자(social educato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면하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며, 그가 속한 사회의 행동기준이나 건전한 문화를 수용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원리나 기술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는 영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빈곤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현재의 빈곤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은 빈곤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결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일정 시간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수강명령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교회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바탕을 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미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사회화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수정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회에 바람직한 인성으로 변환시키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여덟째, 재원조달자(fund raise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 교회의 십일조는 대표적인 예이다. 고아, 과부, 임시체류외국인, 유산이나 재산이 없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 소득의 십분의 일을 봉헌한다(신14:29). 사회봉사주일헌금과 같은 특별헌금도 빈민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교회는 빈민구제모금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교회들은 ‘모금을 위한 걷기운동(CROP Walk)’을 실시해 빈민구제기금을 모금한다. 이 기금은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사람과 부랑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을 후원해 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기아퇴치 위한 걷기(Hunger Walk)’라는 이름으로 모금행사가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자선음악회를 열거나 일일장터를 열어 자선기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교회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재원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있다.

아홉째, 치유자(healer)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치유자로서 교회는 육신의 질병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병행하는 전인적 치유를 담당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질병을 고치는 치유자로서 이적을 행하셨다. 교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한 병자들을 위해 직접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교회는 영성치료, 그리스도요법, 내적 치유 등의 치유 사역을 행하기도 한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미국 북장로교의 한국 최초 의료선교사인 알렌(Allen)은 1885년 정부의 후원으로 최초로 근대병원인 광혜원(뒤에 제중원으로 고침)을 세웠고, 1904년 세브란스(Severance)는 한국의 의료선교사 애비슨(O. R. Avison)에게 2만5천 달러를 희사하여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으며, 1885년 5월 감리교 최초 선교사의 한사람으로 서울에 들어온 스크랜튼은 감리교 정동병원을 세워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병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한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³³⁾

교회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제도의 연계, 간병인 파견, 방문간호,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의뢰 등을 통하여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질병 치유를 원조할 수 있다. 최근 물질적 풍요 가운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인문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문치료는 종교 철학 문학 등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갖도록 원조해주는 것이다. 교회는 정신적 빈곤에 처한 자들에게 인문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다.

열번째, 자원봉사관리조정자(volunteer manager or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란 유행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필요가 인식되어졌을 때 강제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자원봉사의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운다. 교회는 지역사회 빈민들의 간병활동, 가정봉사, 탁아, 학습지도, 호스피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후,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하여 주는 자원봉사관리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는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봉사희망자간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LETS를 들 수 있다.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란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녹색달러, 미국에서는 타임달러(time dollar), 우리나라에서는 FM(Future Money)등으로 불리우는 일종의 지역거래교환제도이다. 이는 지역공동체내에서 회원간의 상호봉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자원봉사분야에서 공익전문가 자원봉사인 프로보노 봉사(probono service)가 종종 활용된다. 프로보노란 라틴어로 영어의 “공익을 위하여(for the public good)”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공 봉사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전문적인 노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지며, 통상적으로 법률전문직분야에서 사용되어져왔으나 마케팅, 기술, 전략자문,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³⁴⁾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안팎의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

열한번째, 위탁운영자(consignment manager)로서 역할이다. 교회는 정부나 민간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별교회가 정부나 사회단체 또는 중앙총회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위탁받아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차원의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교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교회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사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열두번째, 사회적 포용자(social includer)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빈민들의 경우 많은 경우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33)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기독교문사, 1980), 495-498쪽.

34) 김기원,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계고』, 『한국교회봉사단 자원봉사세미나 자료집』, (서울:한국교회봉사단, 2009), 19-23쪽.

교회는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는 빈민들을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유지와 결연시킴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후원은 물론 주류사회의 성원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교회의 후원종류에는 사업후원 또는 기금후원(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층도시락-밀반찬배달사업, 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 공부방프로그램, 가정봉사원파견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정기적으로 후원), ii)결연후원(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개별적 결연), iii)일시후원(비정기적으로 후원), iv)물품후원(식품, 생활용품, 재활용품 등 지원) 등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교회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줌으로써 그들이 노령이 되었을 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교회에 호소하고 있다.

교회가 후원을 함에 있어 유명한 복지기관에 중점적으로 후원하는 재단충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복지시설이나 빈곤장애인과 같은 열악한 사람들에 우선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세번째, 역량강화자(empowerment worker)로서 교회의 역할이다. 빈민들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삶과 사회체계에 영향을 줄 만한 지식과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빈민들의 무력함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권한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개발시키고 훈련시켜야 한다. 빈민뿐만 아니라 빈민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기독교단체들의 역량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사업이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환경 안에서 이해하며, 자원과 강점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결점에 대한 진단보다는 강점을 강조하고, 문제를 제거하려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 회복력(resilience)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는 실천방안을 말한다. 교회는 빈민들이 처해있는 문제를 빈민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대화를 통해 빈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자원을 구체화한 후, 빈민들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빈민들의 욕구를 구체화하고 가능성을 발견한 후 개인적 사회적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선택한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삶을 대처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다.

Ⅷ.나가는 글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퇴출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빈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회복지의 역사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빈곤구제의 역사의 한편에는 항상 기독교가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양한 유형의 빈곤이 소개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빈곤의 유형은 절대적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이란 경제적 빈곤의 한 유형으로 주로 소득과 재산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빈곤 문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물질

자원, 기관자원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난한 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빈곤의 덫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어떠한 선교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전적 선교관에서 전통적 선교관으로 그리고 다시 통전적 선교관으로 움직이는 대반전과 대반전의 반전이라는 일련의 시계추 현상(the pendulum syndrome)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와 사회봉사에 관한 관계는 크게 전도=선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전통적 선교관과 선교=전도+사회봉사라는 통전적 선교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선교관은 빈곤구제의 선교적 가치를 부인하거나 매우 경시하고 있고, 반면 통전적 선교관은 빈곤구제의 선교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세의 자선사업은 국가나 사회가 아닌 교회 및 개인의 종교적 동기에 기인해 구제의 대부분이 시여(施與)의 형식으로 주어졌다. 무분별한 회사의 증가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므로 여러 지방에서 빈민을 증가시켰다. 종교개혁 이후 자선사업의 큰 임무는 중세의 폐해 많은 구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빈곤문제의 해결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의 빈곤관은 통전적 선교관에 가깝다. 루터는 신앙과 선행간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선행이 없는 신앙은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 쓸모가 없는 잘못된 신앙임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집사들에게 사제보조적인 일을 하지 말고 본래의 사명인 봉사에 전념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날까지는 국가가 빈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칼빈은 교회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통제, 사회복지, 교회수호자라는 세가지 존재근거를 두고 있다. 빈곤복지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칼빈은 국가를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기구로 보았다. 칼빈은 전제주의국가를 배격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였다. 칼빈은 폭군들과 불의하게 집행하는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 받은 정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칼빈이 몸소 수행한 복지사업으로는 프랑스 기금, 실업자 구제, 종합구빈원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기금(Bourse Francaise)’은 칼빈이 제네바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자선과 프랑스 선교라는 두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칼빈은 사유재산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빈부간의 격차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금을 형성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칼빈은 나태한 삶을 비판하고 근면성을 강조하였으며,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보았다. 칼빈은 개혁교회 안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책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집사 직무는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교회의 직제로, 모금과 관리와 같이 구제를 위한 재정을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procurator)’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직접 도와주는 ‘보살피는 자(hospitaler)’로

구분하였다. 칼빈은 교회 헌금은 고대교회의 관례에 따라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교직자, ii)가난한 자, iii)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 iv)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들을 위해 각각 1/4씩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칼빈은 교회가 가진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피난민과 가난으로 시달리는 제네바시민을 위하여 종합구빈원이라는 복지시설운영을 지원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시가 임명하는 구빈원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구빈원 재정운영을 감독하고, 구빈원 운영에서 집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빈원 원장직의 업무상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사회복지행정가로서의 의미있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빈곤복지선교자로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가치판단자, 이슈제기자, 서비스제공자, 사례관리자, 프로그램개발자, 사회교육자, 재원조달자, 자원봉사관리조정자, 치유자, 위탁운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빈민들은 종종 빈곤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빈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빈곤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생계지원자, 사례관리실천자, 공동모금 활용자, 의료서비스제공자, 사회적 포용자, 신용사업수행자, 역량강화자, 시설서비스제공자, 영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고백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순종하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하늘의 사업이고 거룩한 사업이자 구원 사업이고 동시에 회복의 사업인 것이다. 빈민들을 위한 교회의 복지사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이자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기독교문사, 1980.

김기원,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2000.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교육과학사, 2009.

김기원,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제고” 『한국교회봉사단 자원봉사세미나 자료집』, 한국교회봉사단, 2009.

김혜련,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서울:통계청 통계개발원, 2010.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울:보건복지부, 2015.

서정운, “사회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이두호 외, 『빈곤론』, 서울:나남, 199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정은희·이주미, 『2015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통계청, 『2014 사망 원인 통계』, 서울:통계청, 2015.

황정욱. “종교개혁기의 십일조와 가난의 문제”. 『한신논문집』 16(1), 서울:한신대학교출판부, 1999

Bryant L. Meyers,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 and Practice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장훈태 역,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 장훈태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DiNitto, Diana M. & Dye. Thomas R., Social Welfare:Politics and Public Policy, Newjersey, NJ:Newjersey/Prentice Hall Inc., 1988.

Harrington, Michael, The New American Poverty, New York, NY:New York / Penguin Books, 1985.

Lane, Tony, Christian Thought, 김웅국 역, 『기독교 사상사-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서울:나침반, 1991.

Murray, Charles, Losing Ground, New York, NY/New York / Basic Books, Inc., 1984.

Niesel, Wilhelm, Theology of Calvins,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Oxford Conference,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Oxford / Oxford Conference, 1990.

Stott, John,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정옥배 역,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Valentine, Charles A., Culture and Poverty, Chicago, IL: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법제처, 문화기본법, www.moleg.go.kr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OECD 국가 상대적 빈곤율, worldrank.tistory.com/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 <http://worldhappiness.report/>

빈곤과 교회의 역할

김철진 교수(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의 과정에서 펼친 운동은 선교와 사회봉사라는 두 갈래 길이었다. 선교도 적극적이었지만, 후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다시 교육과 의료의 두 부문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기독교 학교다. 병원은 더욱 그렇다. 고아원 양로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 역시 다르지 않다. 문명 퇴치는 더 결정적 예다. 근대화과정에서 문명 퇴치는 필수불가결의 시대적 사안이다. 한국 사람들의 문맹률을 급속히 낮추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의 역사를 거듭한 것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현안에 헌신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빈곤과 교회의 역할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의 역동을 기대하며 ‘빈곤과 교회의 역할’이란 김기원 교수님의 옥고(玉稿)에 토론을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우리 사회는 IMF 환란을 겪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급팽창과 조기퇴직으로 상징되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빈곤층이 양산되었는데 이들이 기존의 만성적인 빈곤층과 합세함에 따라 빈곤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저학력, 중장년, 여성, 장애인등의 취약실업자들의 재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짐이 나타남에 따라 절망과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류층의 소득은 늘어나고 씹씹이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52만6000명에 달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17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래된 이후 꾸준히 민족을 깨우고 문화와 정신을 깨우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교회는 생명의 구원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다. 첫째는 예배의 사명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예배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둘째, 교육의 사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하셨으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셋째, 전도(선교)의 사명이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넷째, 구제의 사명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 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제의 사명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제를 하였다.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교회에서 교제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사명을 실천함으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고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영혼구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복음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지만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교회의 원래 기능이 퇴색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교회의 오해’라는 책에선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뿐 아니라 유용한 다른 학문들을 가르치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런 교육기능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둘째, 교회를 친목회라고 오해하기 쉽다. 물론 성도들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으로 자주 모이고 교제하며 다과를 자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친교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셋째로, 교회를 자선사업 단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난·재해 등의 복구에 힘쓰고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적 공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교회는 구제를 행하지만 구제를 위한 기관은 아니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전파와 영혼구원이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 역시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부흥과 성장을 통한 복음운동에 전력하려면 우리 사회의 큰 현안 문제인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로 이행되는 세계화에 원인이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시장을 우상처럼 섬기며 모든 것을 시장에다 맡기는 자유방임적 구조를 만들어 놓아 인류는 이제 사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안에서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제까지 교회의 빈민에 대한 도움은 시혜적 차원에서 베풀어졌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최저생계의 보장은 사회적 의무이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직접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빈민에 대한 지원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절대빈곤의 해소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기회를 획득하게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지원의 종류도 물질적인 지원에서 비물질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요구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에서 자존심을 유지하고 스스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현금을 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물자를 지급하는 시혜를 베푸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 사회가 빈민의 생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평등과 나눔의 공동체사회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빈민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빈곤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빈곤과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운데 말

1.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병자, 노인, 이런 이들에 대한 원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있으며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모델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게 하였고 ‘하나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시 8:5). 따라서 인간은 설령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노숙자의 자녀로 태어났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수준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은 자유의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물질적 자유의 획득을 의미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라는 성경말씀은 빈곤이 속박하고 있는 부자유로부터 인류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마 22:37),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사랑은 없다.’(요 15:12)고 하신 성경말씀처럼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랑의 정신이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의 첫 번째 과제이다.

또한 예언서 중 (스 7:10)에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고 했다. 가장 소외되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보살피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존의 벼랑 끝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의 생존의 권리가 다른 어떤 권리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형성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 중의 하나이다.

2. 현실은 어떠한가?

1) 국내 빈곤의 현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인구가 늘고 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 이는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소수의 자본가, 전문경영인 및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에 집중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시장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일반화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바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의 통로가 좁아지는 것으로서 빈곤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예고하며, 정보활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층과 없는 층의 노동시장경쟁력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서 빈곤의 세습화와 고착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사스케아 사센교수의 “정보화의 물결이 요트를 물위에 띄워주고 있으나, 수 없는 평범한 보트들을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있다”고 지적하였듯이 한국 사회에서도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 실업수당 및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의 고용 불안정층이 양산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여성의 빈곤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조기은퇴 또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집단에게만 높은 보수가 주어지고 약간 경쟁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퇴출당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으며 여자의 경우 은퇴연령은 더욱 낮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 중장년 실업자들은 대부분 가장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장이자, 가장으로서 식구들의 생계출입 뿐만 아니라 자아성취의 장으로서 직장을 잃으면 단순히 소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잃게 되어 삶의 존재 의미마저 잃게 된다.

소수의 다수부양의 문제점과 절망의 빈곤층의 확산, 즉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단지 빈곤규모의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중장년(55 ~ 65세)실업자,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의 빈곤층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빈곤탈피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절망의 빈곤층으로 침전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절망의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빈곤층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기 쉽고 반사회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절망의 빈곤층에게 빈곤탈피의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활사업의 미비, 복지제도의 미비,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의 후퇴, 간병 부담의 사회문제화, 유흥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난한 남성의 가구구성 불가능의 문제, 부패 및 인적 관계망 자원의 경제자원화, 아파트투기와 주거빈곤, 심각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 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빈곤의 민낯을 본다.

2) 세계 빈곤의 현실

먼저 미국주도 세계화의 재편을 들 수 있는데, 90년대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견제세력의 위협이 없어지자 미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엔진을 가동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시키고 있다. 때문에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개도국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가 거의 동의어로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돈으로 환산되는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 이외의 능력은 능력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신학, 철학, 윤리학, 등의 영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과목은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경제 우선 정책에 밀려나 간과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철학이 빈약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공존하는 나눔의 가치는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적 가치에 밀려나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러한 참가치 부재의 사회로의 이행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다. 시장논리가 지배되지 않는 공공의 영역이 많이 확보될수록 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단기 투기 자금의 폐해, 불균형적인 세계화, 시장의 불안정, 빈국의 외채문 제등도 세계 빈곤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3.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왔는가? (교회의 역할 변화)

한국 교회는 각 교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참여와 빈민구제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교단별로 지휘, 감독, 지원하고 교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설 및 단체와 복지분야별 실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복지 패러다임이 가족과 근린집단 복지에서 사회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불우이웃에 대한 시혜와 사회봉사’는 빈민의 생존권, 노동권, 주거권, 의료권, 이동권, 육아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고 불우이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의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변화 과정에서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추가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를 새로이 발굴하여 정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새 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기초인프라인 각 지역별 자원봉사 서비스 체계를 미리 구축함으로써 정부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도 노력을 가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대형교회와 중소형 교회의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이다.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의 중심적인 단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전초기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지역민을 만나는 곳이 교회이므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봉사의 누수를 막고,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셋째,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회의 대형화, 물량화, 익명화, 중산층화 현상이다. 너무 많은 성도

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보니 같은 교구나 구역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은데다가 주거지 계층분화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웃들이 비슷한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혜 가능한 부유층 성도와 수혜가 필요한 빈곤층 성도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생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근린집단’으로서의 복지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4. 비판적 성과와 과제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민중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고 개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성도의 중산층화와 조직의 대형화를 겪으면서 급격히 보수화 되어 가고 있다. 성도들은 건강한 윤리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다른 일반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숭배적 자본주의적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나 너도나도 자녀들의 경쟁력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상대적 기회의 박탈은 외면하고 있어서 과열 경쟁의 교육풍토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산층 성도들은 오히려 이상 과외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아파트 투기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만약 교회가 성도들이 무한경쟁 체제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 심화가 초래할 사회통합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적 윤리관을 실천하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를 당연시하는 풍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주5일제 근무와 더불어 중산층 성도들이 주말을 즐기느라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저소득층 성도들마저 교회를 외면한다면 교회는 서구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회의 옴부즈만(ombuzman) 역할을 제대로 하여 비윤리적인 무한경쟁체제에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여 우리사회가 건강한 나눔과 화합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트는데 기여할 때 비로소 이제까지 쌓아온 한국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신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는 대개 사회복지 예산이 20 ~ 40% 수준인데, 이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예산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의 책임은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복지활동의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선진국의 교회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데 사회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교회들은 그래도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 참여가 번영의 키워드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 교회지도자들은 미국과 서구 교회의 급격한 위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적극적인 복지활동 참여만이 부흥과 성장의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시설과 기관의 확충, 기관의 실패는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피와 땀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시설기관들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운영비로 60% 정도가 나간다. 또 엄청난 인력을 요구하는 이웃들에 대한 수발 인력은 절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로 메우는 실정이다. ‘가난한 불우이웃’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시설기관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영세기관으로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시설을 소형시설 혹은 그룹홈으로 바꾸고 시설개방화를 통해서 탈시설화, 소공동체로 재편성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지출도가 교회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재원 확보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수준 높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처우개선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연구소의 설립과 민관협조체제의 구축, 21세기는 사회복지의 세기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복지를 비롯하여 사회보험, 각종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많은 복지영역에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정부나 교회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 내에 연구활동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교단과 교회 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반면, 시민 개개인이 삶의 존재의미를 음미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과 관이 협조체계를 이루는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복지수혜자와 그들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여 관의 부족한 공공 사회안전망이 교회차원에서 보충되고, 정부의 아웃소싱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되어 적극적으로 참여되기 위하여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one stop service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

교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빈곤에 관해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이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도 통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발제자께서 거론하셨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는 가치판단자(value-judge), 영적 멘토(spiritual mentor), 이슈제기자(issue-initiator), 생계지원자(applicants living), 사례관리자(case manager),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 사회교육자(social educator), 재원조달자(fund raiser), 치유자(healer), 자원봉사관리조정자(volunteer manager or coordinator), 위탁운영자(consignment manager), 사회적 포용자(social includer), 역량강화자(empowerment work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세계단일시장화의 시장실패, 전인류가 공존하는 방식의 세계화에 대한 갈망, 건강하고 평화로운 복지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worker론으로 복음을 위해 근로자, 노동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 일별로 표시할 수 있는 worker를 다음과 같이 기술코자 한다.

가치판단자(value-judge)	
영적 멘토(spiritual mentor)	
이슈제기자(issue-initiator)	
생계지원자(applicants living)	Worship(예배)
사례관리자(case manager)	Ownership(주인의식)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	Revival(부흥)
사회교육자(social educator)	→ Kit(하나의 묶음)
재원조달자(fund raiser)	Eagle(독수리)
치유자(healer)	Repeat(반복하다)
자원봉사관리조정자(volunteer manager or coordinator)	
위탁운영자(consignment manager)	
사회적 포용자(social includer)	
역량강화자(empowerment worker)	

우리 모두는 빈곤의 교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worker다. “나는 Worker다. Worker는 전사(戰士)하지 않는다. Worker는 전사(戰死)하지 않고 다만 전사(戰史)를 기록할 뿐이다.

worker론에서 첫 번째, Worship(예배)를 의미하는데, ‘worship’은 ‘worth-ship’에서 유래한 말로 ‘worth’는 ‘가치’ 또는 ‘명예’를 뜻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원래 ‘가치있는 상태’를 의미한 말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예배는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앙인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신을 향한 인간의 존경과 경의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근본적으로 종교 그 자체이며 종교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을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탁월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Ownership(주인의식)이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신 소명의식으로 ownership을 갖을 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시작되리라 본다.

셋째, Revival(부흥)이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다면 빈곤을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넷째, Kit(하나의 묶음)다. 하나의 묶음 그 전부를 의미하는 kit는 빈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과 접근 방식이 복음의 경주내에서 더불어 실천하는 하나의 묶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Eagle(독수리)다.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날마다의 성령 충만이 빈곤을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인 것이다.

여섯째, Repeat(반복하다)다.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령충만으로 탁월한 worker가 될 수 있다.

III. 나오는 말

교회의 복지활동이 너무 산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교회의 시설 운영 및 재정이나 시스템 등 형식적인 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복지의 제1안전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고 제2안전망은 사회복지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과 제3안전망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주서비스 제공기관인 제1과 2안전망이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제3안전망에 속하는 교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특히, 빈곤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교회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고백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순종하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하늘의 사업이고 거룩한 사업이자 구원 사업이고 동시에 회복의 사업인 것이다. 빈민들을 위한 교회의 복지사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이자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빈민사역, 토지소유의 원상회복, 이자없는 대부, 초대교회의 빈곤, 희년공동체, 예루살렘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성경속에 나타난 빈곤의 해결은 개인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방향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교회사회복지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빈곤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본래의 사명과 역할에 따라 사회복지적 실천인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의 빈곤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한다.

셋째, 자원의 연계이다. 지역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서로 연계하여 빈곤자를 위한 자원연결과 함께 사회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진(2013),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형지사.
 (2015), 사회복지실천론, 한솔출판사.
 (2015), 인성정서코칭과 복지 및 상담교육의 미래, 생명사랑 7개 기관 공동워크숍.
 박승탁(2014),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41.
 양성승(2007),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과 활성화 방향 탐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준석(2010), 구약성서의 사회복지사상과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필(2011), 지역 사회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과제, 한중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과 교회의 역할

김 형 태³⁵⁾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I.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

1. 소외계층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 2세까지를 영아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연령층을 유아로, 초등학교 연령층을 아동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아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소외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며 필요와 욕구에 비해 현실적인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부모 모두 일을 하여 아이들만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소외계층 아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외계층을 ‘우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사회적 삶의 수준에 못 미치며, 필요와 욕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가정’으로 정의하고, 소외계층 아동은 ‘소외계층 가정의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그 연령층의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5)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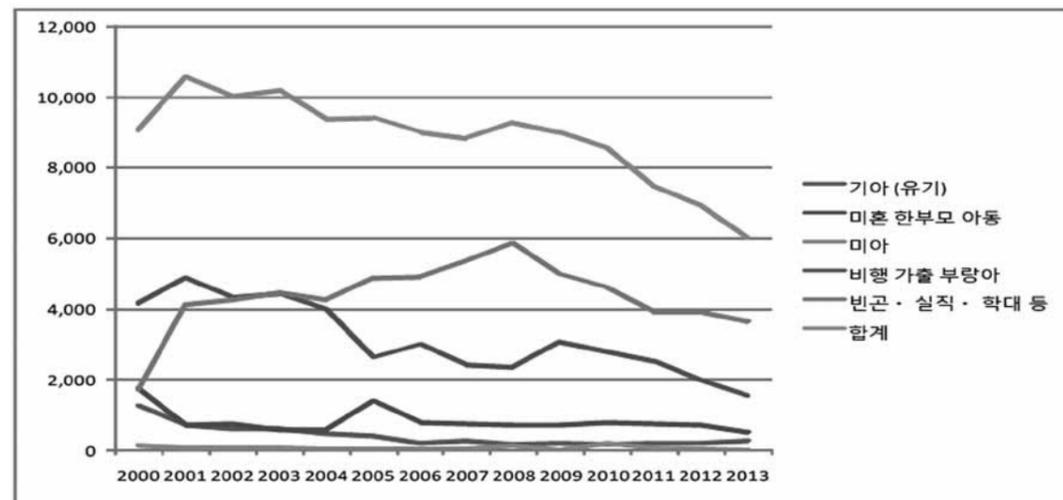
2. 소외계층 아동 현황

경제적·사회적인 소외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소외는 빈곤문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외는 사회활동이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단절된 경우로 규정할 수 있다. 아동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화, 정치, 스포츠, 예술 등의 영역에서의 소외가 있으나 대부분 사회적 소외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 소외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요보호아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보호아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소외계층 아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 현황은 다음의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단위: 명

년도	기아(유기)	미혼 한부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불량아	빈곤/실직/학대 등	합계	10만명당 발생인원
2000	1,270	4,190	152	1,757	1,716	9,085	66.1
2001	717	4,897	98	728	4,146	10,586	78.5
2002	634	4,337	74	749	4,263	10,057	76.2
2003	628	4,457	79	595	4,463	10,222	78.9
2004	481	4,004	62	581	4,265	9,393	73.6
2005	429	2,638	63	1,413	4,877	9,420	-
2006	230	3,022	55	802	4,925	9,034	74.4
2007	305	2,417	37	748	5,354	8,861	74.1
2008	202	2,349	151	706	5,876	9,284	78.6
2010	222	3,070	35	707	4,994	9,028	77.5
2011	191	2,804	210	772	4,613	8,590	75.1
2012	218	2,515	81	741	3,928	7,483	66.6
2013	235	1,989	50	708	3,944	6,926	63.1
2014	285	1,534	21	512	3,668	6,020	56.2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1] 소외계층아동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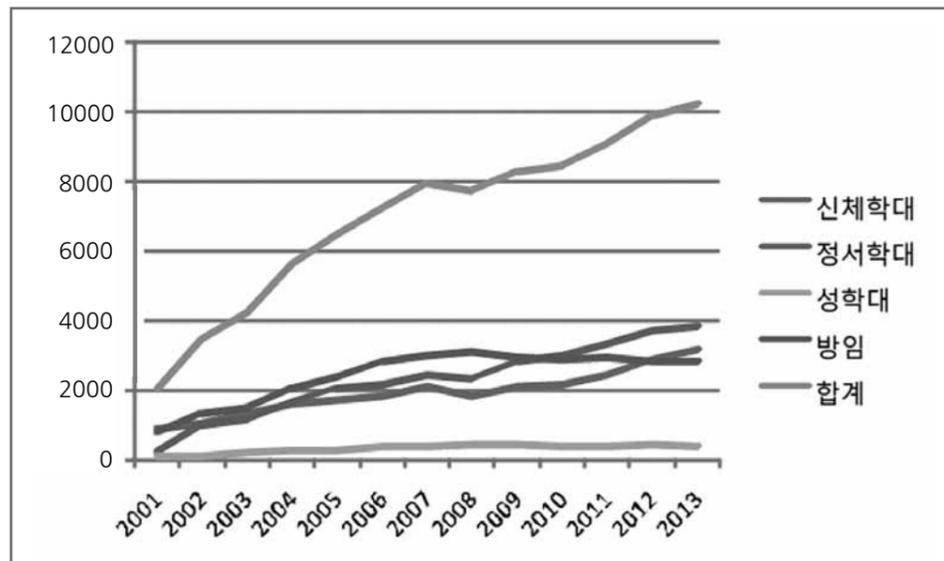
소외계층 아동의 전체 합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천 년대 중반까지 미혼 한부모 아동이 가장 많았지만, 2천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소외계층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혼 한부모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1천 명대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비행 가출 불량아는 큰 변화 없이 연간 5백~8백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아동인데 2001년에 약 4천1백 명에서 2007년과 2008년에 5천4백 명에서 5천9백 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3천7백 명에서 4천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아는 발생하는 아동의 수나 비율이 미미하고 기아 역시 발생하는 아동의 수와 비율에서 적은 편이다. 이 중에 아동학대를 따로 살펴보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학대와 방임은 다소 늘어났지만 큰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뚜렷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을 모두 합친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정서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체학대는 구타나 신체적 처벌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남기지만 정서학대는 주로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서학대는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표 2>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년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합계
2001	890(44.6)	192(9.6)	116(5.8)	797(39.9)	1,995(100)
2002	1,039(30.1)	961(27.9)	119(3.5)	1,329(38.5)	3,448(100)
2003	1,315(31.3)	1,172(27.9)	203(4.8)	1,514(36.0)	4,204(100)
2004	1,587(28.3)	1,680(30.0)	266(4.7)	2,071(37.0)	5,604(100)
2005	1,728(26.7)	2,034(31.4)	305(4.7)	2,416(37.3)	6,438(100)
2006	1,827(25.3)	2,182(30.2)	372(5.2)	2,842(39.3)	7,223(100)
2007	2,095(26.4)	2,420(30.5)	409(5.1)	3,018(38.0)	7,942(100)
2008	1,857(24.1)	2,315(30.1)	424(5.5)	3,105(40.3)	7,701(100)
2009	2,095(25.2)	2,847(34.3)	426(5.1)	2,939(35.4)	8,307(100)
2010	2,182(25.9)	2,974(35.3)	400(4.7)	2,878(34.1)	8,434(100)
2011	2,464(27.2)	3,312(36.5)	368(4.1)	2,919(32.2)	9,063(100)
2012	2,858(28.8)	3,758(37.9)	446(4.5)	2,849(28.7)	9,911(100)
2013	3,160(30.9)	3,843(37.6)	380(3.7)	2,848(27.8)	10,231(100)

출처: 이용교 외(2015)의 표를 재구성함.



[그림 2] 아동학대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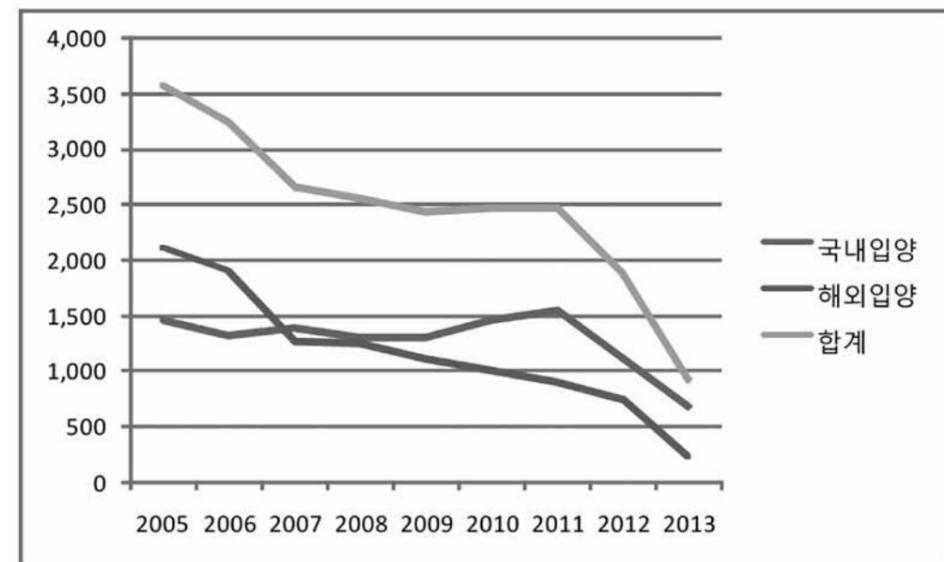
3. 소외계층 아동 보호현황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은 위축, 우울, 자존감의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동이 가출을 하면서 가정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아동은 쉼터와 같은 곳에서 일시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아동은 중장기적인 보호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 이를 가정 외 보호라고 하며 대표적인 가정 외 보호는 입양,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그룹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입양은 영구적인 가정 외 보호로서 부모의 사망 등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동에 대해 새로운 가족과 영구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입양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해외입양은 아동은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지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되지만 국내입양 역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3>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입양은 큰 감소를 보이고 있고, 국내입양은 2010년과 2011년에 잠깐 증가하였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입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연도별 입양아동 단위: 명(%)

년도	국내입양	해외입양	합계
2004년 이전	66,146 (29.9)	155,044 (70.1)	221,190 (100)
2005	1,461 (41.0)	2,101 (59.0)	3,562 (100)
2006	1,332 (41.2)	1,899 (58.8)	3,231 (100)
2007	1,388 (52.3)	1,264 (47.7)	2,652 (100)
2008	1,306 (51.1)	1,250 (48.9)	2,556 (100)
2009	1,314 (53.9)	1,125 (46.1)	2,439 (100)
2010	1,462 (59.1)	1,013 (40.9)	2,475 (100)
2011	1,548 (62.8)	916 (37.2)	2,464 (100)
2012	1,125 (59.8)	755 (40.2)	1,880 (100)
2013	686 (74.4)	236 (25.6)	922 (100)

출처: 이용교 외(2015).



[그림 3] 연도별 입양 아동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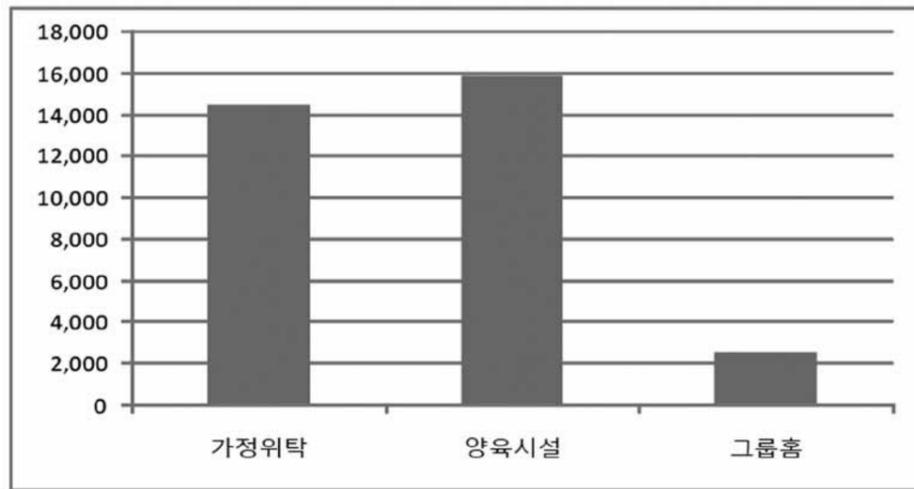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위탁과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가정위탁이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보호제도이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거주형 시설로서,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 등 위기가동을 구호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그동안 대표적인 아동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룹홈은 보건복지부의 자료

(2016)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최대 7명까지의 아동을 사회복지전문가가 양육하는 아동보호제도이다. 가정 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의 현황은 다음의 <표 4> 및 <그림 4>와 같다.

<표 11> 보호유형별 보호아동 현황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수	보호아동	시설 수	보호아동	그룹홈 수	보호아동
11,030 가정	14,502명	281개	15,916명	476개	2,588명

출처: 가정위탁과 양육시설은 2012년 기준이고 각각 이용교 외(2015)와 보건복지부(2013)에서, 그룹홈은 2014년 기준이고 보건복지부(2015)에서 참고하였음.



[그림 4] 보호유형별 보호아동 현황 그래프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이 약 1만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약 1만4천5백 명으로 다음으로 많다.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약 2천6백 명으로 가장 적다. 아동의 가장 바람직한 성장환경은 태어난 나라 및 태어난 고장에서 친부모 및 친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이는 아동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 및 친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친가정에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친가정에서 가까운 곳의 소규모의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가장 소규모이면서 가정보호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정의 부모들이 아동발달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중대형 규모의 시설들로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정환경과 거리가 멀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아동보호에 참여하므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룹홈은 4~5명의 아동을 2~3명의 사회복지사가 일반 가정환경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가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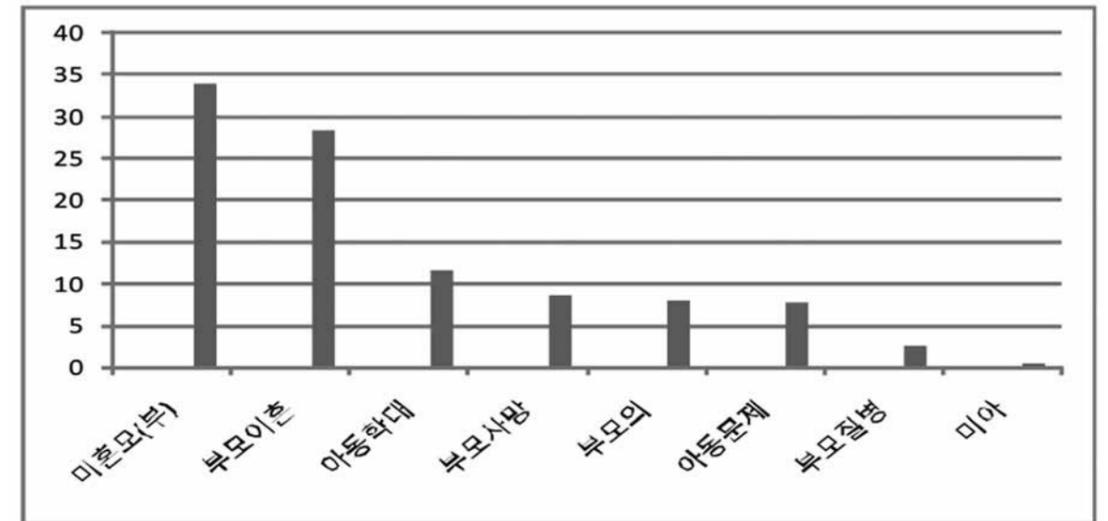
탁과 양육시설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가정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동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아동복지 선진국에서는 소외계층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 보호나 그룹홈 보호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중대 규모 양육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중대규모의 양육시설 보호를 지양하고 소규모의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룹홈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보호체제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의 <표 5>와 <그림 5>는 전국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입소사유이다.

<표 5>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유

미혼모(부)	부모이혼	아동학대	부모사망	부모의 빈곤/실직	아동문제 행동 (비행, 가출 등)	부모질병	미아	합계
34.0	28.3	11.6	8.5	7.9	7.8	2.5	0.4	100

단위: %

출처: 이용교 외(2015).



[그림 5] 2009년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유 그래프

위 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혼모나 미혼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약 3분의 1로 가장 많고 부모이혼이 그다음이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합하면 62.3%인데 이는 아동이 가정에서 쉽게 포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부모가 출산을 했다고 해서 자녀양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혼부모가 출산을 하면 주위의 시선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통해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려움들이다. 무엇보다 태어난 아동의 삶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퍼져나가야 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양육의 포기사유가 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자녀양육을 지속해 나가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

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국가와 사회적 지원과 노력으로 자녀양육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부모사망을 제외하면 다른 입소사유는 예방이 가능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모든 아동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은 태어난 나라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스스로 가장 바람직한 환경을 인식하여 선택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정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친부모와 친가정에서의 양육이 포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외계층 아동 지원사업 현황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담당한다. 아동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보호 아동시설 보호
- 가정입양지원
- 가정위탁지원
- 소년소녀가장지원
- 공동생활가정 운영
- 아동급식 지원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드림스타트
- 방과후 아동보호
- 아동학대예방
- 아동안전보호
- 아동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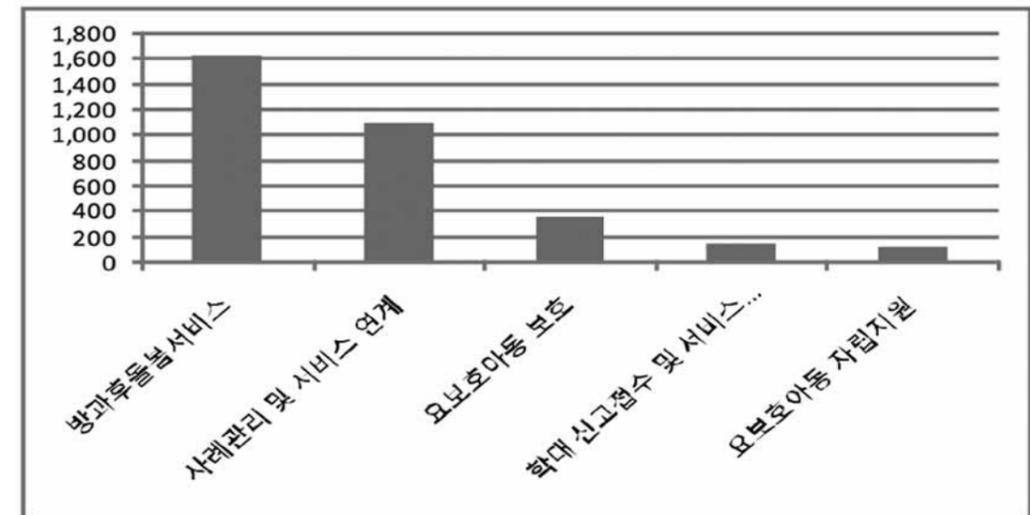
여기에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층의 아동이나 그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아동의 통장에 저축을 하면 국가가 월 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2세까지의 소외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아동)에게 건강, 언어, 정서 등에 대한 지원 및 학습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개별적 욕구에 따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방과후 아동보호는 소외계층 아동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복지사업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의 예산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예산은 다음의 <표 6> 및 [그림 6]과 같다.

<표 13> 분야별 아동복지사업 예산

분야	예산	비율(%)
방과후돌봄서비스	약 1,630억 원	48.5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약 1,100억 원	32.5
요보호아동 보호	약 360억 원	10.7
학대 신고접수 및 서비스 연계	약 160억 원	4.6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약 120억 원	3.6
합계	약 3,370억 원	100.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



[그림 6] 분야별 아동복지사업 예산 그래프

전체 예산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취학아동 중에 수업이 끝난 후에 혼자 지내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란 소외계층 아동 등에게 통합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개별화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위 표에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아동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위탁이나 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만 18세에 이르면 대학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호가 중단되어 자립을 해야 한다. 소외계층 아동이 보호를 벗어나 자립을 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바다에 출항한 조그만 배가 망망대해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살 집을 마련하고 먹을 것을 장만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부모의 지원이 있어도 힘든 시대에 아무런 바탕이 없는 소외계층 아동이 사회에서 독립한다는 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다. 정부는 소외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분야별 자립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소외계층 아동 자립지원 현황

〈표 14〉 분야별 시설외소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구분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경제	- 디딤씨앗통장 - 자립정착금
주거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전세주택지원
교육	-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
취업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자립체험관 - 바람개비서포터즈 - 두드림존 운영

출처: 정익중 외 3인,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6에서 재인용.

경제적인 지원으로 디딤씨앗통장과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최고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주거지원으로는 자립생활관과 전세주택지원이 있는데 자립생활관은 시설외소 아동에게 최장 3년까지 숙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주시설이다. 취업과 관련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시설외소아동뿐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국회예산정책처, 2016)이다. 시설외소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중에 프로그램에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체험관, 바람개비서포터즈, 두드림존 운영 등이 있는데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보호아동의 단계·학년·수준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국회예산정책처, 2016)이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먼저 자립한 보호종결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예정 아동에게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하는”(국회예산정책처, 2016)프로그램이다. ‘두드림존’은 “자립을 필요로 하는 15~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동기부여, 경제교육, 직업탐색, 기술교육, 학업지속 연계, 사회진출 등을 위해 직업훈련과 자격취득을 지원”(국회예산정책처, 2016)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외소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며 시도별로 자립지원정착금에 차이가 있고 가정위탁과 양육시설, 그룹홈에 대해서도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다음의 〈표 8〉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원액이다.

〈표 15〉 시도별 자립정착지원금 지원액

단위 : 만원

	2015년(1인당)			2016년(1인당)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서울	500	500	500	500	500	500
부산	500	500	500	500	500	500
대구	-	300	300	300	300	300
인천	300	500	500	300	300	300
광주	100	400	400	400	400	400
대전	-	300	300	-	300	300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500	500	500
경기	500	500	500	500	500	500
강원	300	100	300	-	-	-
충북	500	500	500	500	500	500
충남		500	500		500	
전북		300	300		500	300
전남		300	300		300	300
경북		500	500		500	500
경남	500	500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276.5	423.5	435.3	294.1	417.6	376.5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6. 6),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재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평균은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한 값임.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그리고 제주가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모두 자립하는 아동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는 세 시설에 4백만 원을, 대구와 인천은 세 시설에 3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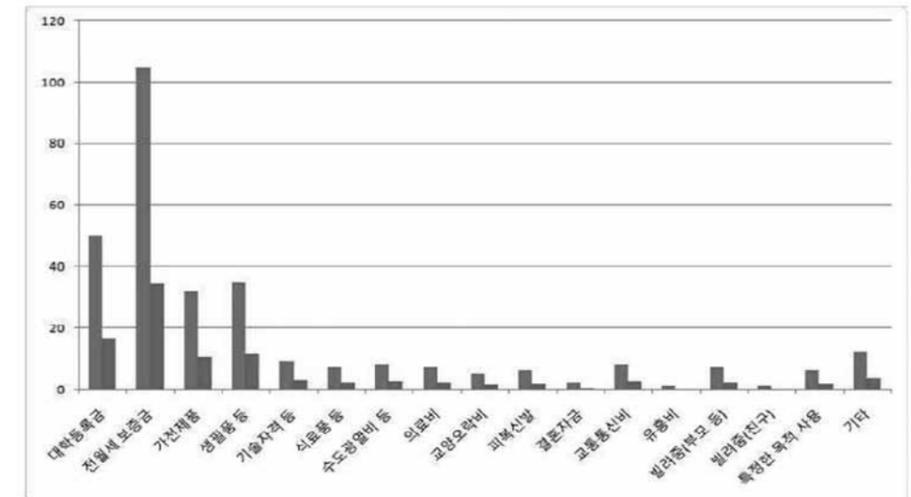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은 세 시설 모두에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충남은 양육시설에만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대전과 전북, 전남, 경북은 가정위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양육시설과 그룹홈에 대해서만 3백만 원 또는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립지원시설은 18세부터 25세까지의 퇴소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에 12개의 자립지원시설이 있다. 전세주택지원은 23세까지만 지원하며,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지역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은 시도별로 다르며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 또는 실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설퇴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항목별로 사용한 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9> 및 [그림 7]과 같다.

<표 16> 시설퇴소아동의 항목별 자립정착금 사용 금액 단위: 만원, %

항목	금액	비중
대학등록금 및 교재	50	16.6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05	34.9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	32	10.6
생필품 등 생활비	35	11.6
기술자격 및 취업후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9	3.0
식료품 등 주부식비	7	2.3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8	2.6
의료비	7	2.3
교양오락비	5	1.7
피복신발	6	2.0
결혼자금	2	0.7
교통통신비	8	2.7
유흥비	1	0.3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줌	7	2.3
친구에게 빌려줌	1	0.3
특정한 목적으로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6	2.0
기타	12	4.0
합계	301	100.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



[그림 7] 시설퇴소아동의 항목별 자립정착금 사용 금액 그래프(만원, %)

자립정착지원금 전체 평균 301만원 중에 가장 큰 비용으로 사용한 곳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평균 105만원이었다. 그다음으로 대학등록금 및 교재였는데 약 50만 원을 사용하였고,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과 생필품 등 생활비로의 사용이 각각 32만원과 35만원이었다. 전월세 보증금, 가전제품·가구집기 구입, 생필품 등 생활비, 식료품 등 주부식비, 의료비, 피복신발 등의 비용을 합하면 200만원으로 자립정착지원금으로 받은 약 300만원 중에 3분의 2인 2백만 원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과 국가의 지원현황을 알아보았다.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소외계층 아동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와 같은 학대를 받는 아동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 아동 중에 친부모와 살 수 없어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 중에 상당수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통해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에 이르러 시설을 떠나야 할 때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이 소외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지의 마련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교회가 이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에서 모색해 보았다.

II.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 아프리카의 격언 -

1. 교회와 교회사회복지실천

소외계층 아동을 돕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을 교회가 수행할 때 이를 ‘교회사회사업’ 또는 ‘교회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한다. 교회사회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교회 조직의 후원 하에 행해지는 직접, 간접의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교회사회사업의 본질은 첫째, 교회사회사업의 동기가 복음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봉사)를 전달하는 장이 되고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교회사회사업은 일반 사회사업 프로그램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perspective)에서 접근한다”(박종삼, 2000)는 점이다. 교회의 사회봉사와 교회사회복지실천은 유사한 측면도 있고 상이한 측면도 있다. 교회사회사업 또는 교회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의 전반을 다루며 전문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라면 교회사회봉사는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회사회복지실천과 교회의 사회봉사를 맥락에 따라 혼용하였다.

2.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의의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은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중심에서 탈락하여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외면한 ‘본질적인 모습’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하고, 본질과 존재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길”(大鳥未男, 1986, 김성이 외, 2005에서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사랑의 실천이고 생명의 나눔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1) 공공재원의 한계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소외계층아동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진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투입할 수 있는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조성된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국가의 예산과 인력으로 모두 대처할 수는 없다.

2) 시민조직의 자발적 연대 구축

교회와 같은 자발적인 시민조직에 의해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국가가 떠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원조활동인데 바람직한 사회란 사회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이다. 국가의 예산이 충분할지라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해 나갈 때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성경에서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사회이다.

3) 시민사회조직의 효과성

전문적·비전문적 도움은 교회와 같은 시민사회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새로우며 매우 다양하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로봇기술 등 자동생산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력을 대체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어 상시적 고실업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소외현상은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족의 보호기능 역시 약화되면서 개인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적 개입을 수행할 수 있고, 비전문가는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의 조직을 통해 지지하고 후원하며 상호부조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의 인력을 통해 전문적·비전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내의 소외계층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직이다.

3. 교회사회복지실천의 방법

교회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으로서 사랑, 나눔, 봉사 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조직이다. 교회가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성경의 중심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규모가 큰 중대형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교를 위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이고 사회복지선교는 선교를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아동은 근본적으로 부모나 가족과 분리하여 생

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 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실천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돕는 것과 전문적으로 돕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교회는 전문성이 없어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돕기는 어렵다.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들은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그러한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등,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자.

1) 교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교인들의 전공과 직업, 취미와 특기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상세하게 교인 개개인의 활동분야를 파악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분류해 놓으면 좋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모든 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가정과 아동을 도울 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에 종사해야만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라면 소외계층 아동에게 컴퓨터 관련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의 기회, 장래의 진로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소외계층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가정주부라면 소외계층 가정에 필요한 가사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다. 특히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후원자가 되어줄 수도 있다. 교회는 교회 안의 아동 및 지역의 아동과 1대 1의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주어 개인적인 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성장하는 아동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탄력성(resilience)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탄력성은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수용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발달된다. 이 때 단 한 명이라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동의 주변에 있다면 탄력성이 발달된다. 아동 한 명당 성인 한 명이 이러한 지지자 역할을 해준다면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소외계층 가정 및 아동을 파악한다.

소외계층 가정이나 아동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소외계층 가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이 빈곤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족이라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사회적 기준과 그들 스스로의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원하는 소외계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의 생활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교인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연결시켜 줄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질문으로 작성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파악하는 것은 개별 교회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접촉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 가정 및 아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및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교회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다면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을 얻어 체계적인 지역조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 및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과 별개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바를 파악하여 상호보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외계층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다.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동이 파악되었다면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빈곤한 가정이므로 경제적 도움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욕구에 반한 지원일 수가 있다. 빈곤한 가정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일 수 있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해 교회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도움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잠잘 곳, 먹을 것이 부족한 거리의 노숙인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물었더니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담배 대신 1만원을 주었더니 노숙인이 괜찮다며 담배 한 대만 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1만원을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준다면 주는 사람의 선한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노숙인은 불쾌해 할 수도 있다. 도움이란 도움을 원하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 도와줄 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소외계층 아동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다(김형식 외, 2007). 먼저 규범적 욕구이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 정의되는 욕구로서 최저 생계비가 그 예이다. 전문가들이 모여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적 욕구이다. 주관적 욕구라고도 하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욕구이다. 같은 소득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표출적 욕구

이다. 아이가 배가 고프지만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이가 배고프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을 하면 비로소 엄마는 아이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이때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을 하는 것이 표출적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욕구이다. 비교욕구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느끼는 욕구이다.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하자. 월급에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일을 하고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자신이 받아온 월급에 불만이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기는 욕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욕구의 유형과 개념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소외계층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였다면 욕구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보유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은 이루어진다.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 상담전문가가 있다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선생님이 있다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은 학습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게 되는데, 교회가 제공할 수 없는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사회복지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였다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는 법적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교회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사회복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처벌 사안이거나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5) 교회가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은 지역의 타 기관에 연계한다.

지역에는 많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교회가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의 다른 전문기관이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인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 그리고 교회들 간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회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교회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실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위치와 규모, 교인의 구성과 전문성 등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일시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구분한다.

일시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구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소외

계층 가정이나 아동의 문제는 일시적인 어려움일 경우도 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가출을 하였다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문제가 일단락 될 수도 있지만, 부모의 구타, 학대 등 아동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되어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부모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고 교회는 소외계층 가정과 아동에 대해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7) 교인에 대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사회봉사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은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가 사회봉사(사회복지실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사회복지실천의 원리와 원칙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성격 및 행동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의 이해, 사회복지실천방법 등과 관련된 지식과 훈련이 포함된다.

4. 교회의 소외계층 아동 지원의 세 영역

아동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지적(supportive) 지원, 보충적(supplementary) 지원, 대리적(substitutive) 지원이다(Kadushin · Martin, 1988).

1) 지지적 지원

지지적 지원은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아동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이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동 역시 부모와의 관계 맺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지적 지원은 아동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가족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향상, 사회성 훈련 등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부모역할 상담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현대에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전에 비해 스트레스가 늘었고 아동의 경우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졌다.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사람들의 행복 정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아동의 행복도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 수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살률 역시

세계 최고수준이다.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시급하게 내려져야 할 때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가족의 문제이며 부모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공부를 잘 한다고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업이나 생활에서 더 많은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한겨레신문, 2010년 7월 7일자)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극단적인 사례이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유서는 단 네 글자였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교회는 부모나 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모교육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자녀양육에 노후가 있는 교인을 소외계층 아동의 부모와 연결시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충적 지원

보충적 지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일부 보충해 주거나 대행해 주는 지원이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낮 시간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부부싸움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아동이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해 주는 지원이 보충적 지원이다. 교회는 아동을 일정시간 돌봐주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동양육의 경험이 풍부한 교인을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홈메이커(Home Maker)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일정한 훈련을 받은 교인이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기도 하고 가사 전반을 도와주는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도 보충적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소득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소득은 단순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소득 가족이 겪는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하여 아동이 성장하면서 참여하고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그 시대에 흑인들이 겪었던 가난과 차별이 자녀와 부모에게 어떤 아픔으로 다가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노혜련 외 역, 2006).

풍요로운 사회 한가운데에서 밀폐된 가난이라는 새장에 갇혀 질식해 죽어갈 때, 방금 TV광고에서 소개된 놀이공원에 왜 갈 수 없는지 당신의 여섯 살짜리 딸아이에게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고 말을 더듬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유색 인종 아이들에게는 놀이공원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아이의 작은 눈에 눈

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열등감이라는 우울한 기운이 그녀의 어린 인격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어느 누구도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오라고 부추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혹은 국가로부터 수급비를 지원받는 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이 라면 비싼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TV에서 화려하게 선전하는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아이가 보챌 때 부모는 50년 전에 킹 목사와 흑인가정의 부모가 느꼈던 비슷한 슬픔을 오늘날에도 느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소득보장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욕구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득은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삶과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3) 대리적 지원

대리적 지원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부모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유기한 경우 등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정 외 보호를 하는 지원이다.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역시 가정 외 보호를 위한 지원을 교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교인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입양은 가족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동이 어리며 적절하게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보호체계이다. 그러나 입양은 영구적 가족을 이루는 것이므로 가족 모두의 동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인들이 입양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정위탁은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을 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현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일반 가정위탁이 있다. 손자나 친인척이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교인이 있다면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에서도 소외계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룹홈은 개인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시설조건이 까다롭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야 한다. 교회 차원에서 그룹홈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교인 중에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소외계층 아동 지원의 원칙

아동보호의 원칙은 첫째도 아동중심, 둘째도 아동중심, 셋째도 아동중심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 역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을 돕겠다는 훌륭한 의도가 있어도 아동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동정책은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정책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아동관

런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아동복지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약 0.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약 11%인 노인보건복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5%이고, 전체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예산이 약 3.7%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정책에서 아동이 소외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동 1인당 예산이 많게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적인 투입만으로 아동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보호체계가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청소년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며 학업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아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재정투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교회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아동보호사업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의 정신과 원칙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4가지의 기본 개념과 2가지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4가지의 기본 개념은 생존권(Survival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이다.

1) 생존권

생존권이란 모든 아동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 의료, 음식, 교육, 여가와 놀이 등이 포함된다.

2) 보호권

보호권이란 모든 아동들이 착취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발달권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과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놀이, 여가, 정보, 문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4) 참여권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아동의 능력에 부응한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가지의 원칙은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이다. 무차별의 원칙은 아동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회출신, 재산, 능력 등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와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많은 국제규약과 국내법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1조에서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돕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라거나 도움을 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운 것처럼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도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하였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동이 스스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당사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할 때 아동을 누가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아동의 의사를 참고

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할 때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동참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의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도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며,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대상 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욕구는 대개 성인의 욕구와 다르기 때문에 아동으로부터 청취할 때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아동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지원을 할 때 아동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며 스스로 결정할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거나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 이것이 자기결정의 원리이고 아동참여의 원칙이다. 아동의 참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동이 성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보기에 아동은 미약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며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동은 성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적절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이다. 교회는 소외계층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아동이 편안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족중심 지원의 원칙

가족중심의 지원 원칙이다. 현대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간이 갈수록 가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아동은 가족과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으며 가족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동은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되며,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동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동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므로 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부모를 아동과 분리하는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비록 부모의 문제로 아동이 문제를 겪을지라도 이로 인해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동은 부모의 어려움이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족이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아동을 가족단위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전체를 상대하면서도 가족 개개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 원칙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고광신 외, 2010), 낮은 단계일수록 기본적인 욕구이며 생존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욕구이다.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할 때 아동의 상황과 욕구의 단계에 따라 지원을 한다면 아동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생리적인 욕구 :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 물, 공기, 수면 등의 욕구이다.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아동에게 신속하게 생리적 욕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사역은 버려지는 아기에게 긴급하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② 안전에 대한 욕구 :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는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질서 있고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욕구이다. 부모가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할 것 같으면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는 것이다. 아동이 안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불안해 지고 불안해 지면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교회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욕구로서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교회는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에게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아동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④ 자존감의 욕구 : 자존감의 욕구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유능감, 자신감, 성취, 독립, 자유 등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생성되며, 자기존중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된다.

⑤ 자아실현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는 마지막 단계의 욕구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주로 이성에 의해 추구되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로서는 가장 약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 인구의 1% 정도만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원칙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원칙이란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원칙이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살아가면서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를 뿐 저마다의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모를 쏙 빼닮은 자식일지라도 성격과 능력이 다르다. 성인이 아동에게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요하게 되면 아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 하며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한 성장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경향이 더 강하다.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음식을 통하여 아동의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아동은 스스로 어떤 음식이나 경험이 자기에게 이롭고 또는 해로운지를 안다”(이훈구 역, 1983)라고 하면서 이를 유기체적 평가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데이비스의 ‘음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로 증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영양상태의 불균형이 생기면 아동이 자기의 식사습관을 자연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이훈구 역, 1983)는 것이 증명되었다.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만약(ifs), 그리고(ands), 그러나(buts)라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을 수용하거나 존경하는 것”(이훈구 역, 1983)을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고 정의하였다.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는 “개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진보하게 만든다”(이훈구 역, 1983)고 하였다. 로저스는 “만일 네가 이런 짓을 한다면 또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아동에게 나쁜 것이 없다”(이훈구 역, 1983)고 하였다. 아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건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를 조건에 따른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고 해서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어떤 행동을 금지시킬 때에도 아동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지라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사회봉사 또는 교회사회복지실천은 중대형 규모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작은 규모의 소형교회가 보다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다. 교회의 규모보다는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아동이나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돕기로 결정하였다면 소외계층 가정과 아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을 정립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할 것처

럼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는 소외계층 아동을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라는 생각, 문제아를 둔 부모는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 문제아들의 미래는 뻔할 것이라는 생각과 같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축적되고 더욱 강해지기 쉽다. 확신이 클수록 편견도 심해질 수 있다. 편견이란 사실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나의 관점과 익숙한 문화를 통해 판단할 때 나타난다. 문화는 편견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대학생 문화, 강남 문화, 제주도 문화, 서민 문화, 고등학생 문화, 한국문화와 같이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는 동일한 집단을 동질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집단을 오해하는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교회마다의 문화가 다르고 기독교인들의 문화도 비기독교인들과 다르다.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돕기로 하였을 때 교회의 문화나 기독교문화가 소외계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편견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생각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화적 차이가 편견으로 나타난 사례(노혜련 외 역, 2006)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Darius)는 여행 중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자 매우 당황했다. 예를 들면, 그는 인도의 한 부족인 칼라트인(Callarian)들이 관습에 따라 돌아가신 부친의 시신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인에게는 물론 그런 관습이 없었다. 그리스인들은 화장을 했고 화장하는 것이 고인을 처리하는 자연스럽고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리우스는 세상을 지적으로 이해하려면 문화적 차이를 올바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궁전에 있던 몇몇 그리스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돌아가신 부친의 육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다리우스가 예상한 대로 그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리우스는 이번에는 칼라트 사람들을 불러왔고 그리스인들이 듣고 있는 곳에서 칼라트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부친의 육신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칼라트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다리우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말했다.

II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고광신 · 김승훈 · 손연숙.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눔의집, 2010.

김성이 · 유순도 · 이창희 · 김종인 · 김광빈 · 황옥경 · 김병삼 · 박현정.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서울: 나눔의집, 2005.

김형식 · 이영철 · 신준섭.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양서원, 2007.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2000.

2. 외국서적

Kadishin, Alfred and Martin, Judith A.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 Publishing Company, 1988.

3. 번역서적

Rachels, Jame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노혜련 · 김기덕 · 박소영 역, 『도덕철학의 기초』. 서울: 나눔의집, 2006.

Hjelle, L. A. and Ziegler, D. J.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3.

4. 신문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2010년7월7일자.

5. 인터넷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6. 연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 · 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침”, 2016.

보건복지부. “2015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4년 12월 31일 현재)”, 2015.

보건복지부.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2년 12월 31일 현재)”, 2013.

이용교 · 김형태 · 오승환 · 정경은 · 정민기.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연구. 보건복지부 위탁 연구 보고서”, 2015.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고려되어야 할 것들 -김형태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안정선³⁶⁾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 14:18”

1. 들어가며

발제자인 김형태 교수는 사회복지이론가로서 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의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하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반대로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이론적인 면에서도 크게 이르지 못하는 입장에서 토론하기에는 부담이 크기도 하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문제제기나 기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전개를 하기는 어렵고, 단지 현장의 실천가로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발제의 전반부인 소외계층아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부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한 내용으로 달리 이론의 여지가 없어 현장상황에 따른 약간의 첨언을 하는 정도로 지나가도 될 것이다.

후반부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 또한 전문가로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과 대안제시를 하였기에, 발제자체에 대한 이의나 문제제기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발제문 63쪽을 보면 「교회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으로서 사랑, 나눔, 봉사 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조직이다. 교회가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성경의 중심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규모가 큰 중대형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교를 위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이고 사회복지

36)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는 선교를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서 ‘교회의 중심정신의 실현 방법과 사회복지의 선교를 위한 방법론’이라는 점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에서 간략하나마 가정의 보호아동에 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해보겠다.

2. 논의 사항

1) 소외계층아동의 현황

49쪽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국회에서 안 규백 의원이 아동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앞으로 아동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아동복지의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외 계층의 분류도, ‘우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사회적 삶의 수준에 못 미치며, 필요와 욕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가정’으로 정의하고, 소외계층 아동은 ‘소외계층 가정의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그 연령층의 아동’으로 정의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정이 없거나 고등학교 졸업이후에도 자립이 어려워 보호가 더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고려가 따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52쪽의 소외 계층아동의 현황과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소외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소외아동의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비율로 보면 소외아동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그래프상으로 보면 아동의 신체학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정서학대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2014년 9월에 발효되면서부터 더욱 학대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은폐되어있던 아동의 학대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외계층아동의 보호현황

52쪽에서 국내아동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도리어 국내임양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는 것은

입양특례법의 발효이후 입양의 조건이 엄격해져, 그러지 않아도 입양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에 부담을 더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4쪽의 보호유형별 보호아동의 현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그룹홈 순으로 보호아동의 수가 적어지는데 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보호조치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원칙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는 아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의 보호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하는데, 2015년도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편의위주로 아동을 배치하게 되고, 그럴 경우 가장 손쉽고 문제발생이 적은 양육시설로 배치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은 오랜 기간 운영이 되어왔고,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어 문제발생의 위험성인 적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추세나 아동복지학계의 의견, 아동발달의 과정을 고려해서 대규모 양육시설의 보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대규모 양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가정형보호인 그룹홈 보호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나 학계, 현장에서 그룹홈의 가정형 보호가 바람직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현재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정부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그룹홈 보호의 질이 높다는 인식으로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반대로 활성화되던 그룹홈의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도리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홈의 운영자 특성을 보면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적인 배경이 가장 많고, 고령화 되어 있으며, 낮은 처우에도 보람은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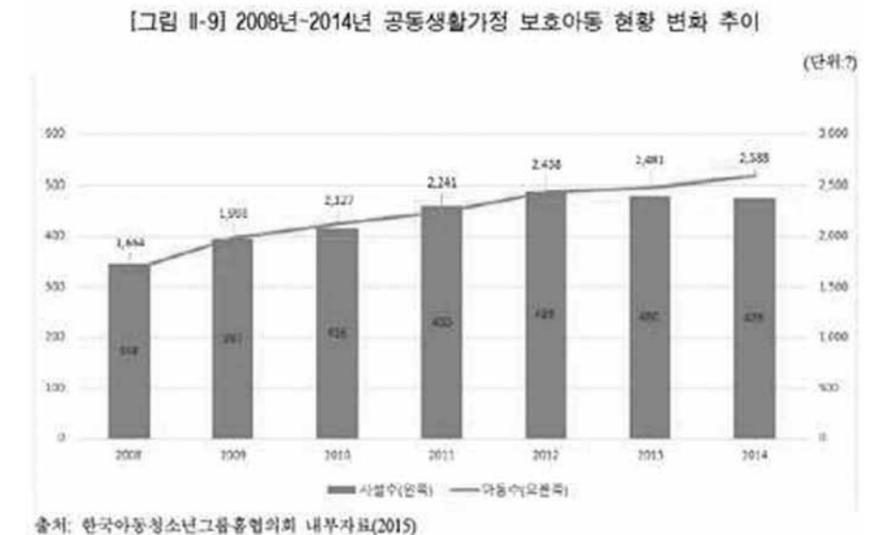
이는 아마도 기독교적인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나 신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사명감으로,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아동을 돌봐 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와 특히 아동복지의 시작은 전쟁고아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기독교적인 고아에 대한 연민과 돌봄이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에 있어 기독교적인 바탕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3) 소외계층아동의 지원사업과 자립지원

56쪽 이후 61쪽까지의 지원사업과 자립지원에 대하여서는 통계의 내용들 모두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다만 기존의 아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보호대상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각 체계의 존립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지원체계들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체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아동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와 드림스타트 등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사업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전국에 5,000여개소가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과 후 아동보호, 아동급식지원, 아동안전과 드림스타트의 사업을 통합하여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 보호에 있어서 양육의 질 향상과 경제성 제고 등의 이유로 그룹홈중심 위주의 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아동양육시설과 위탁사업은 보조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아동의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자신의 의지와 선택보다는 외부적인 결정에 의하여 보호형태가 정해지게 되는데, 아동의 보호 형태에 따라 지원이 차별적으로 다르고, 더구나 자립에 있어서도 지역과 체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표의 내용들로도 자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지만, 더 문제는 자립(실질적으로는 분리)이후의 지원과 관리가 더 문제일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자립하기가 어려워 대학원을 마치고도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많은 상황에서, 시설에서 만 18세에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나와 스스로 완전히 자립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거의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아동들을 방치하여 종내 사회적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당장은 시설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개월 이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때 원가정이 없는 아동들에게 있어 한계에 다다른 삶을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정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생활시설들이 자립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명절이나 휴가 때 찾아와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엄밀히 불법인 것이 현실이다.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나가면 아무리 어리고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이 오로지 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자립이라는 팍팍한 현실이다.

설사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지속가능 여부가 문제이며, 저축이 불가능하고 생존에 급급한 상황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어찌하여 가족을 꾸리더라도 그 열악한 상황은 지속되어 부부문제와 자녀문제, 주택문제 등 더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견딜 능력이 없는 경우 다시 이혼이나 가출, 자녀방임이나 학대 등 자기가 겪었던 문제의 대물림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십상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사회전체의 보호와 지지체계의 문제이겠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과 자립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적절한 활용과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수께서 발제문에 넣은 결론은 아동들이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절대 동의하며, 친가정이 유지되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절대 과제일 것이다. 그에 더불어 피치 못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현재의 아동양육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하였지만, 기독교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하여 긍정성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기독교적 이해는 부족하나 기독교의 대중성에 힘입어 들어온바 사회복지적 입장으로 보면 기독교는 가난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히브리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거류하는 나그네 등과 함께, 세상에 냉대받기 쉬운 자였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행해진 인도적인 배려는 히브인들 율법의 특징으로 파악되는 근거들이 있다.(출:22:22-24 등)

또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아래 있는 대표적인 계급으로 그려져 있고, 선지자들도 시인도 모두 고아에 대해 친절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사 1:17 등) 고아를 학대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의의 대표적인 해악으로 간주되었다.((욥 6:27 등)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라고 격려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으로 고아를 지칭하였다.

이후 야고보는 구약선지자의 정신에 따라 참된 종교실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약 1:27)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등 기독교적 전통에서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였다고 보인다. 고아와 과부가 우선 배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서 위치 지어진 존재에 대한 사랑이 기독교의 근본적 실천덕목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의 의의

발제자는 ‘교회의 본질을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과, 생명의 나눔으로 같다’고 보고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기본적인 실천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근거로 공공재원의 한계와 시민조직의 자발적 연대구축, 시민사회조직의 효과성을 들었다.

이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보완의 측면에서 교회의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실현 혹은 하나님나라의 구현에 상호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의 대전제는 교회가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 속에 있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회를 선도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에 와서 교회와 사회는 다방면에서 갈등의 양상을 띠기까지 한다. 그동안 사회를 선도해왔던 교회의 순기능은 고아 등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도덕적인 순결함이 그 원동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회복지의 발달로 교회에서 수행하던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면서 교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사회의 물질화와 세속화에 따라 교회도 그 흐름을 따라가며 교회의 도덕적인 위상과 존경도 많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과제가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다시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도덕적 모범으로 그들에 대한 존경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존재의 의의가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은 세상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선포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일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는 하나님나라 건설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나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자명하며,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발제자는 현대의 많은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조직으로 교회를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선교의 한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양성이나 지역사회전문가와 협조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원 확인과 욕구 파악, 가능성의 분별, 연계, 지원기간의 구분, 교육실시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동의를 하며 다음의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도와 교회가 부딪히는 모습이 노정되곤 하는데, 소소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대개는 교회의 입장인 선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회이고 특히나 제도적으로 부실하여 생긴 문제임에도 가장 제도적인 관리를 많이 받아야 하는 현장이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수단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도로서 사회복지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완적 제도로만 규정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회복지참여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통한 복지실현의 역할을 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환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회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교회가 선교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은 교회의 사회복지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할 때 교회의 선교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서 직면하는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고 할 때,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하나님나라의 백성만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경우 하나님백성이 아닌 경우는 교회의 복지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확대해서 보면 전통적인 약한 이들과 소외계층인 고아나 과부 등 가난한 이들 외에도 최근에는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이들이 하나님백성이어야만 기독교의 복지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복지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기독교의 사회복지참여에 도전적인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교회가 참여하는 역할이 사회복지나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나라 건설에 있으며, 이는 선교를 통해 확장해나가는 것이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선교를 강조할 수 없게 되며, 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들이 자발적 감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다시 복지의 본질에 통합되어 기독교가 사회와 갈등 없이 선교로 하나님 나라건설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결국은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성스러운 헌신을 통해 일반인인 클라이언트들을 강요하지 않고 감화시켜 자발적으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좋은 기회와 장을 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마무리하며 보면 발제자는 단순하게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특히 아동복지에 참여하는 본질적인 의미와 방법을 서술한데 비해, 토론은 복지와 선교의 본질에 대해 도리어 과하게 들어간 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고 특히, 기독교를 배경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현장에서 생기고 있고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발제내용으로 돌아와 아동복지영역 특히, 가정외 보호의 발전상이 될 수 있는 그룹홈영역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그럴 경우 필요한 교회와 복지현장의 과제를 조금 정리하며 마치겠다.

1) 교회에서 그룹홈운영에 기대되는 역할

교회가 아동복지전반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동복지의 여러 분야 중에서 그룹홈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룹홈은 가정외 보호 아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양육, 교육, 정서와 자립지원 등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기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한다면 그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적합한 모델일 수 있기에 그룹홈의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그룹홈은 전국에 500여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대규모양육시스템을 소규모 양육으로 전환하고 그룹홈보호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볼 때 추후 2,500여개소의 그룹홈이 필요할 것이다.

(1) 그룹홈 직접운영

교회에서 직접 그룹홈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회는 시설장1인과 사회복지사2인을 고용하고, 신고여건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기간(1년 정도)이 지난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보조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교회(재단)가 모든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가 그룹홈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동양육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크고, 반면에 교회는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운영 등을 직접관리라는 책임과제를 안게 되는 측면이 있다.

(2) 기존 그룹홈의 운영지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그룹홈을 교회단위로 지원하는 경우로, 대개의 그룹홈은 운영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후원이 부족한 시골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시설장의 인건비로 운영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골의 경우 대개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많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단위에서 작은 그룹홈의 운영을 지원한다면 교회는 직접관리의 큰 부담 없이 아동양육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운영위원으로 참여

그룹홈은 모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교회단위나 개인적으로 그룹홈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들은 그룹홈의 문제를 예방, 해소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직, 간접의 도움을 통해 아동보호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적인 후원

그룹홈이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성, 전문성, 지지네트워크 형성, 원가족 회복 등 아동의 바른 양육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지만, 유독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시설의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그룹홈은 아동보호의질이 높다는 인정 하에 보호의뢰 아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시설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아예 장사가 되지 않는(어느 국회의원이 그룹홈 예산을 보며 한 말)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종사자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얻고, 소진되어 그룹홈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전적 지원으로만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부족한 지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룹홈은 가정형 보호라는 그 특성상 아동을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행위가 어렵다. 스스로 찾아오는 후원자는 고맙지만 공개적으로 후원자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회 차원의 개인 후원자 확보 및 지원사업은 그룹홈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금전적인 후원 뿐 아니라 이동 지원(운전), 교육, 문화행사,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후원도 일손이 적은 그룹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회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 고려할 점

앞의 토론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1) 자발적 감화를 통한 선교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의 종교의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교단의 목회자나 종사자들의 행동을 통해 감화된 클라이언트들의 자발적인 개종이나 귀의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교의욕이 앞선 사회복지사업은 종교의 강요로 인해 자칫 복지사업의 근본목적 훼손하고 도리어 반종교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충돌, 확산할 우려가 있어 경계되어야 한다.

(2) 경제적인 관점의 전환

사회복지의 여러 입장에서 교회와 제도의 갈등요소가 있지만 특히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그 입장이 더 명확히 갈릴 수가 있다. 사회복지가 개인의 순수한 연민을 넘어 제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재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입장과 다루는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것은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그것에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르의 것을 가이사르에게 돌릴 만큼 명확히 나뉠 것이 아니라서 조정의 필요가 발생한다.

복지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의 관리자적 측면에서 교인들의 재정지출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적으로는 순수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횡령 등의 어마어마한 형식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여 이에 대해 확실한 구분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는 하나님의 뜻과 착한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식의 사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고 확실하게 구분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하나님백성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정립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기독교의 하나님백성으로 선별된 사람들만이 아니다. 과부나 고아 등 전통적인 약자들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이교도와 성소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 대상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는 약자와 소외계층 등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에 최우선적으로 봉사하는 사업이기에 종교와 사상, 삶의 형태와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억압, 강요를 행해서는 안된다.

발제자의 마지막 결론처럼 ‘교회가 소외계층아동을 돕기로 하였을 때 교회의 문화나 기독교문화가 소외계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사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고 특히,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보면 염려할 바는 아닐 수 있지만, 이교도나 성적소수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들을 편견 없이 단순하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3) 끝내기

김형태 교수의 발제는 기독교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였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인정하지만,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있어 기독교의 참여나 기여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높고, 특히 토론자가 일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는 목회자 등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과 실천으로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기독교의 역할이 더 높아질 것이며, 복지의 질적 수준도 기독교가 주도할 때 외형 뿐 아니라 내적인 향상도 기대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정신과 현장의 복지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와의 관점의 차이와

실행의 방법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방식으로 선교사업을 한다면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교회가 사회복지방식을 받아들여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참여는 선교의 목적이기 보다는 순수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순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랑의 실천이 되고, 이를 서비스 받은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감화가 결과적인 선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의 바람직한 형태라는 생각이다.